



저작자표시-비영리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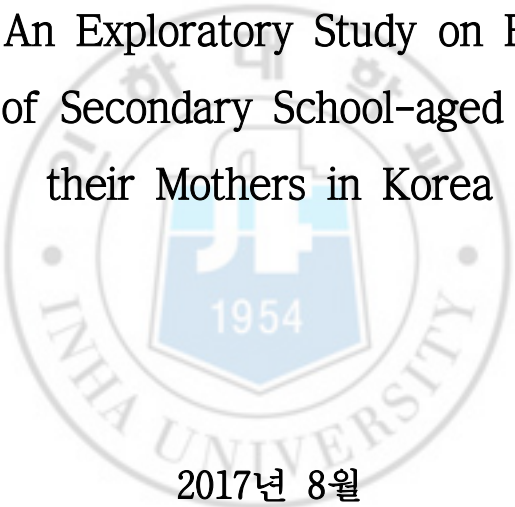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석사학위 청구논문

국제결혼가족의 자녀 교육 경험에 대한 탐색적
연구: 중등학교 재학 청소년 자녀와 어머니의
시각을 중심으로

Navigating Children's Educa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An Exploratory Study on Educational
Experience of Secondary School-aged Children and
their Mothers in Korea

The logo of Inha University is a circular seal. It features a central shield with a blue and white design, including the year '1954'. The text 'INHA UNIVERSITY' is written around the perimeter of the seal.

2017년 8월

인하대학교 대학원

다문화학과(다문화교육전공)

김 양 현

교육학석사학위 청구논문

국제결혼가족의 자녀 교육 경험에 대한 탐색적 연구:
중등학교 재학 청소년 자녀와 어머니의 시각을
중심으로

Navigating Children's Educa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An Exploratory Study on Educational
Experience of Secondary School-aged Children and
their Mothers in Korea

2017년 8월

지도교수 김지훈

공동지도교수 배을규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이 논문을 김양현의 석사학위논문으로 인정함

2017년 8월



국 문 초 록

국제결혼가족의 자녀 교육경험에 대한 탐색적 연구
: 중등학교 재학 청소년 자녀와 어머니의 시각을 중심으로

김양현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다문화교육전공

본 연구는 중등학교 재학 자녀를 둔 국제결혼가족이 학업, 진로, 진학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쟁적인 한국 교육 맥락에서 어떠한 교육 경험을 하는지를 탐색했다. ‘어머니 노트’에 관한 교육사회학 및 가족사회학 이론과, 계층재생산에 관한 부르디외 사회학의 시각에 기반을 두고 국제결혼가족의 경험을 분석하고자 했다.

반구조화 질문지를 이용하여 심층 면접에 기반을 둔 질적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 참여자는 국제결혼 어머니 12명과, 그들의 중등학교 재학 청소년 자녀 7명이다. 연구참여자 어머니의 출신 국적은 중국 2, 일본 4, 우즈베키스탄 1, 베트남 1, 몽골 1, 필리핀 2, 태국 1이었다.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 자녀는 대학생 1명, 고등학생 4명, 중학생 2명이었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에 참여한 국제결혼 어머니들은 초기에는 원가족 경험에 기반을 두어 ‘어머니 노트’를 구성한다. 이후 국제결혼 어머니들의 ‘어머니 노트’는 한국 교육 경험과 문화적 안내인과의 만남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분화한다. 한국 교육 경험의 차이에 따라 ‘확장’과 ‘유지’ 유형이 나타나고, 문화적 안내인과의 만남에 따라 ‘전환’ 유형이 나타난다. 각 유형에 따라 자녀들의 학교 경험도 구분이 된다. 그러나 진학 및 학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공통적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그 원인이 연구참여자 어머니들의 ‘어머니 노트’가 신자유주의적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어머니 노트’와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 분석했다.

초창기에 국제결혼 어머니들은 이주 이전에 모국에서 원가족 경험을 겪으며 형성된 실천적 감각을 바탕으로 ‘어머니 노트’를 구성한다. 이 실천적 감각은, 사교육을 적극적으로 계획적으로 활용하여 자녀 교육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한국의 ‘매니저 엄마’ 노트와는 대비된다.

‘어머니 노릇’은 국제결혼 어머니들이 한국에서 겪는 경험을 통해 실천적 감각을 재구조화 하면서 세 갈래로 분화한다. 동원 가능한 자본의 양에 따라 한국 교육 내에서 겪는 경험이 달라진다. 경험의 양이 많은 경우 ‘확장’, 경험의 양이 적은 경우 ‘유지’ 유형이 나타난다. 문화적 안내인을 만나는 경우는 ‘전환’ 유형이 생겨난다.

각 분화의 세부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천적 감각의 ‘확장’ 사례에 해당하는 국제결혼 어머니들은 이주 이전에 형성한 실천적 감각을 자녀 교육에서 주요 가치로 유지하면서도, 한국 교육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녀 교육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었다. 둘째, 실천적 감각의 ‘유지’ 사례에 해당하는 국제결혼 어머니들은 이주 이전에 형성한 실천적 감각을 자녀 교육에서 주요 가치 및 실천으로 유지하고 있었다. 셋째, 실천적 감각의 ‘전환’ 사례에 해당하는 국제결혼 어머니들은 문화적 안내인과의 만남을 통해 한국의 ‘어머니 노릇’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초창기에 어머니들이 구성한 ‘어머니 노릇’과, 경험을 통하여 재구조화 한 ‘어머니 노릇’은 청소년 자녀들의 학업 및 진학 경험과 깊은 연관을 보인다. 공통적으로, 초창기에 어머니들이 구성한 실천적 감각이 신자유주의적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어머니 노릇’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육 경쟁에서 뒤처지는 경험을 한다. 사교육 활용은 그 대표적인 기제이다. ‘확장’ 유형 어머니를 둔 자녀는 상위권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유지’ 유형 어머니의 자녀는 하위권에서 더 주변화 될 위험성을 지닌다. ‘전환’ 유형의 경우, 한국 어머니를 따라가려는 어머니의 일상적인 학업 관리와 사교육 강조 때문에 어머니와 갈등을 빚는다.

본 연구가 지니는 의의는 그간 주목받지 못하였던 중등학교 자녀를 둔 국제결혼가족의 교육 경험을 심층 연구하였다는 데에 있다. 또한 이 국제결혼 가족들의 교육 경험이 이주 배경이라는 맥락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신자유주의 교육 맥락과 긴밀히 결부되어 있다는 결론은 향후 다문화교육에서도 한국 교육사회학의 연구결과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12 가족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형화를 시도하려 하였기에, 각 유형의 양상을 적실하게 포괄하였다고 주장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제결혼가족의 교육 경험에 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국문초록	i
목 차	iii
표 목 차	vi
제1장 서론	1
1절 연구 필요성	1
2절 연구 문제	4
3절 연구 목적	5
4절 연구 구성	6
제2장 이론적 배경	8
1절 실천적 감각과 부르디외 사회학	9
2절 한국 교육의 신자유주의화	13
3절 신자유주의 변용과 한국의 어머니 노릇	15
4절 국제결혼 어머니들의 어머니 노릇	17
5절 국제결혼가족 자녀들의 학교 경험	20
6절 소결	22
제3장 연구 방법	23
1절 사용한 질적 연구 방법	24
2절 자료 분석 방법	25
3절 연구 참여자	27
제4장 국제결혼 어머니의 어머니 노릇 : 자녀의 성장과 한국 경험에 따른 변화	32
1절 초창기의 어머니 노릇: “받은 대로” 가르치기	33
1항 원가족에게 받은 실천적 감각	34

2항 ‘받은 대로 하기’ 와 한국의 ‘어머니 노릇’ 의 차이	36
3항 “받은 대로” 할 수 있게 만드는 조건 : 성별 분업과 핵가족 구조	41
2절 어머니 노릇의 분화: 실천적 감각의 확장, 유지, 그리고 전환	43
1항 실천적 감각의 재구조화: 한국 교육 경험과 문화적 안내인	45
2항 어머니 노릇의 ‘확장’ : 한국 교육은 “애가 알아서” , 모국에서의 가능성 탐색은 “제가 하는 것 같아요”	51
3항 어머니 노릇의 ‘유지’ : 공부든 진학이든 자녀가 “알아서” , “우리 어머니도 그랬었다.”	56
4항 어머니 노릇의 ‘전환’ : “직장 언니” , “옆집 엄마” , 그리고 “남편의 남동생”	60
3절 소결	66
제5장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자녀의 경험:	
‘다른’ 어머니 노릇과 체계적 배제	67
1절 다문화 배경과 친구 관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요” , “예상 외로 좋았던 것 같아요”	67
2절 ‘어머니 노릇’ 의 구성 및 분화와, 자녀들의 교육 경험	70
1항 ‘확장’ 유형 어머니의 청소년 자녀 : 특목고 진학 과정에서 느낀 “내가 많이 늦었구나”	73
2항 ‘유지’ 유형 어머니의 청소년 자녀 : “바닥을 깔아줄까 봐” , “돈을 벌고 싶어져서” 진학한 학교	76
3항 ‘전환’ 유형 어머니의 청소년 자녀 : 나는 “게임만 하고 공부하고 ... 공부하는 사람”	81
3절 소결	83
제6장 결론	84

참고문헌88

ABSTRACT93

부록95



〈표 목 차〉

〈표 1〉 연구참여자의 기본 인적 사항 및 가족 배경	27
〈표 2〉 ‘받은 대로 하기’ 와 한국의 ‘어머니 노릇’ 의 차이 ...	37
〈표 3〉 어머니 노릇의 분화 유형	44
〈표 4〉 실천적 감각의 재구조화를 야기하는 경험과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	45
〈표 5〉 어머니 노릇의 ‘확장’, ‘유지’, 그리고 ‘전환’	50
〈표 6〉 소득 구간에 따른 한국 사교육비 평균과 연구참여자 가족의 현재 사교육비 비교	71
〈표 7〉 어머니 노릇의 분화에 따른 청소년의 경험	72

I. 서론

1. 연구 필요성

“지금 아이도 어느 정도 컸으니까 다수가 가는 길은 아이들이 저보다 훨씬 더 알아요.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 다니고 있고, 여기 환경에서 살다보니까 저보다 훨씬 더 알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일본으로의 진학 준비]에 대해서는 제가 하는 것 같아요” (예리 어머니, 일본 출신)

“제가 원래 예고를 진학하고 싶어서 중학교 3학년 초반? 2학년 말쯤에 미술 학원을 잠깐 다녔었어요. 근데, 저를 입시 미술생으로 안 쳐주더라고요. 거기 학원이 좀 나쁜 걸 수도 있는데, 그게 [입시 미술생이라고 인정받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방식]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때 ‘내가 많이 늦었구나’ 라는 것을 느꼈죠. 그래서 그 학원을 끊고, 예고 진학을 포기하고 수학 학원을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후회가 되요. 그냥 ‘그 때 그거라도 그냥 더 비싸게 돈 주고 다른 학원 옮겨서 열심히 할 걸’ 이라고 생각이 되요. 1년이면은 충분히 준비할 수 있어요” (예리, 일반계(미술중점) 고등학교 2학년)

예리 어머니는 한국에서 일본어 강사를 하다가 한국인 남편을 만나 국제결혼가족을 이루었다.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첫째 딸 예리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다. 예리 어머니는 자녀 교육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기는 하지만, 인용문에서 보이듯이 한국에서의 교육, 진학, 진로는 여기에서 태어나고 자란 예리가 자신보다 잘 안다고 여긴다. 하지만 예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머니보다 잘 아는’ 예리가 혼자 고등학교 진학을 준비하며 겪었던 어려움이 드러난다. 예리는 예고 입시를 준비하기 위

해 중학교 2학년부터 3학년 초 사이에 미술 학원을 다녔었다. 하지만 학원 선생님들은 예리를 입시 미술생들과 분리해서 따로 가르쳤다. 예리는 그 이유를 ‘자신이 예고를 진학하기에는 늦어서’ 라고 여겼다. 그런 이유로 예고 입시를 포기하고, 대신 선생님의 소개를 받아 미술중점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인터뷰를 하던 도중, 예리는 돌이켜보면 당시 예고를 준비해도 되었으리라 생각한다며 아쉬워했다. 예술고등학교 진학을 둘러싼 예리 어머니와 예리의 이야기는, 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국제결혼가정이 한국 교육에서 겪는 경험에 관해 무엇을 알려줄까?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국제결혼가족의 수가 늘어나면서, 이들의 교육 경험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005년¹⁾에서 2016년 사이 초등학생은 5,332명에서 59,970명으로, 중학생은 583명에서 11,475명으로, 고등학생은 206명에서 7,589명으로 늘어났다(교육통계연구센터, 2016). 국제결혼가족의 중·고등학생들은 그 절대적인 수와 상대적인 비중이 증가하면서 가시화 되는 추세이다. 이 추세는 현재 한국의 국제결혼가족과 전체 인구 구조를 고려하면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기존의 국제결혼가족 자녀 초등학생들이 중·고등학생으로 올라가면서, 국제결혼가족 자녀의 인구 구조는 영유아 중심의 피라미드 형태에서 모든 연령대가 고루 분포하는 종형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다른 한국 가족들과 마찬가지로, 국제결혼가족 중·고등학생 자녀와 그 부모 또한 학업, 진학, 진로가 뒤엉킨 교육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3세 이상 ‘다문화’ 자녀들은 성적과 진로·진학을 주요 고민으로 꼽았다. 만 15-17세 자녀들 사이에서는 성적 고민이 55.1%, 진로·진학이 42.3%로 더욱 두드러진다. 한국에 15년 이상 거주한 국제결혼 여성들이 학부모 노릇에서 겪는 어려움은 자녀 교육에 필요한 경제적 투자가 18.7%, 다른 학부모와의 대화 및 정보

1) 2005년은 한국에서 ‘다문화’ 배경 학생들의 수를 처음으로 조사한 해이다.

습득이 11.2%로 가장 컸다(국가통계포털, 2016).

한국 교육은 신자유주의 도입 이후 경쟁적인 면모가 심화되어 가고 있다. 한국 교육의 경쟁적 특성은 국제적으로도 뚜렷하다. 사교육 참여 시간 1위(PISA, 2012), 교육기관에 대한 민간부담 공교육비 1위 및 청년층의 고등교육(tertiary education) 이수 비율 1위(OECD, 2015)라는 지표는 이를 여실히 드러낸다. 한국의 학부모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서열화 된 중·고등교육 체계 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자 한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교육 지원을 넘어 교육 정보 관리, 공교육 참여 등 다양한 자원을 필요로 하는 복잡한 실천을 해내야 한다(이민경, 2007; 이두휴, 2008). 한국적 맥락에서 이 복잡한 실천을 책임지는 것은 주로 어머니다(박소진, 2007; 이민경, 2007; 박혜경, 2009). 청년 실업난이 지속되면서 학부모의 교육열이 담당하는 영역은 취학을 넘어 취업까지 확장되었다(서근원, 2008). 학부모의 부모 노릇이 복잡해지고, 관여하는 영역이 확장될수록 가족의 계층과 자녀의 교육 성취 사이의 연관은 더욱 강해진다(황갑진, 2006; 변수용·김경근 2008a; 변수용·김경근 2008b; 변수용·김경근, 2010; 김위정, 2012; 김광혁, 2012; 박미희·김성식, 2015).

국제결혼가족은 한국 교육에서 복합적으로 취약한 위치를 지닌다. 한국 사회에서 국제결혼으로 구성된 가족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2015년 기준 다문화 가족의 32.6%는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미만이었다. 동년 한국 가족 중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인 경우는 14.8%였다. 결혼이민자들의 교육 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43.5%, 대학 이상이 24%였다. 한국 25~64세 미만 인구의 학력 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40%, 대학 이상이 45%였다. 이러한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부모 노릇에 반영되는 대표적인 영역은 사교육 이용 양상이다. ‘다문화’ 자녀의 사교육 참여 비율은 64.2%로 전체 73.6%에 비해 9.4% 포인트가 낮고, 주당 사교육 참여 시간 또한 8.14시간으로 한국 전체 9.30시간에 비해 1시간

이상 적었다(국가통계포털, 2016). 가족의 지원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저소득층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학업성취를 보인다. 주목해야 할 것은, 연구들은 같은 저소득층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국제결혼가족 자녀들의 성적이 더 낮다고 보고하고 있다는 점이다(김광혁, 201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국제결혼가족 중등학교 자녀 교육의 중요성은 점증하고 있지만, 중·고등학생이 가시화 되어 가는 맥락을 고려하여 국제결혼 가족의 교육경험에 주목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전까지의 연구들은 주로 유아와 초등학생 자녀를 둔 국제결혼 어머니의 시각에서 이루어졌다(이민경·김경근, 2010; 오민석, 2011; 윤재희·유향선, 2011; 남부현·김옥남, 2012; 이채원 외 2013; 이은아 2013; 이유정·김병수, 2013; 김종훈 2014). 중학생 이상 자녀의 경험에 초점을 두는 연구가 일부 존재하나 대부분 농촌 지역 중학생을 중심으로 학교생활 적응에 초점을 두었다(서덕희, 2011; 권해수, 2011; 정지윤·문성호, 2011; 김건숙·최은미·이호준, 2014; 강일국, 2015). 중학교 진학 이후에 청소년 자녀가 학업, 진학, 진로와 관련하여 겪는 경험이나, 자녀 교육에 관여하는 가족 수준의 실천은 연구의 공백으로 남아있다.

따라서 국제결혼가족 중등학교 자녀와 그 부모의 교육 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할 필요성은 크다. 한국 사회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향후에도 늘어날 것이라 예측되고, 본인들도 교육 문제를 우선적으로 걱정하며, 한국의 경쟁적인 교육 맥락을 고려할 때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국제결혼을 통해 형성되었고, 중·고등학교 이상 재학 중인 자녀를 두고 있는 가족을 사례로 하여 ‘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국제결혼가

죽은 어떠한 교육 경험을 하고 있는가?’ 라는 연구 문제를 탐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국제결혼 어머니의 어머니 노릇과, 청소년의 학교 경험을 파악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어머니·청소년 양 쪽의 시각을 종합하여 접근하고자 하는 이유는, 중·고등학교 이상 자녀를 두고 있는 국제결혼가족이라는 연구 대상의 특성상 분석적 시각을 다양화해야 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자녀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하위 계층일수록 청소년 자녀가 맡는 역할이 늘어나기에(이민경, 2007; 이두휴, 2008) 교육 경험의 실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청소년 자녀의 시각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구 맥락의 이민 가족 내에서 이주 배경의 부모-자녀 간 역할에 대해 이루어진 많은 연구들은, 언어 및 사회적 제도에 대한 지식 차이 때문에 부모-자녀 역할이 전도된다(예를 들어, Orellana, 2009: 1-3, 안지영·김지훈, 2014: 29에서 재인용)는 보고를 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결혼가족의 자녀 교육 경험의 경우, 이주사회학에서 지적하는 이민 배경 가족의 독특한 경험과 상황을 고려할 필요도 클 뿐만 아니라, 자녀의 경험을 중요한 분석 영역으로 포함할 필요성 역시 상당하다.

3.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일차적으로는 중등학교 이상 재학 중인 자녀를 두고 있는 국제결혼가족의 한국 교육 경험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맥락은 어머니들의 이주 배경과, 한국 사회·교육의 신자유주의적 변용이다. 상기한 맥락을 포착하기 위해 어머니들의 ‘어머니 노릇’ 과, 청소년 자녀들의 학교 경험에 주목한다.

점증하는 중·고등학교 국제결혼자녀들의 수를 고려할 때, 본 연구는 향후 교육 현장에서 다문화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

우리라 예상한다. 또한 신자유주의적 변용이 심화되어온 한국 교육 맥락에서, 국제결혼 어머니들의 ‘어머니 노릇’ 구성과 자녀들의 교육 경험 사이의 연관을 살피는 것은 국제결혼가족의 자녀 교육 그리고 계층재생산이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교육사회학 및 다문화교육에 이론적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4.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서론에서는 연구 필요성, 문제, 목적 및 구성을 순차적으로 살펴본다. 점증하는 중등학교 국제결혼 자녀의 수, 경쟁적인 한국 교육 맥락 등이 연구의 필요성이자 연구 목적으로까지 연결되는 주요 배경이다.

2장 이론적 배경에서는 연구의 이론적 기반을 소개한다. 1절에서는 부르디외 사회학을 실천적 감각 개념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2절에서는 한국 교육의 중요한 특징으로 신자유주의화를 제시한다. 3절에서는 신자유주의 속에서 한국의 ‘어머니 노릇’이 어떠한 특징을 지니는지 논의한다. 4절과 5절에서는 각각 국제결혼 어머니의 ‘어머니 노릇’과, 국제결혼 자녀들의 학교 경험에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분석을 바탕으로 연구 본론에서 활용할 시사점을 도출한다.

3장에서는 연구 방법을 다룬다. 본 연구는 심층 면접을 이용한 질적 연구이다. 1절에서는 사용한 질적 연구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힌다. 2절에서는 연구자가 활용한 자료 분석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3절에서는 연구참여자에 관한 개괄적인 정보를 소개한다.

4장에서는 국제결혼 어머니들의 ‘어머니 노릇’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부르디외 사회학은 경험을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자녀의 성장과 궤를 같이 하는, 어머니들의 한국 교육 경험 차이를

주요한 구분 지점으로 간주했다. 따라서 1절에서는 과거 자녀 교육 초창기에 어머니들이 구성했던 ‘어머니 노릇’에 주안점을 두어 분석한다. 2절부터는 현재 시점에서 연구참여자 어머니들의 ‘어머니 노릇’이 분화된 형태와 그 원인을 정리한다.

5장에서는 중등학교 이상 재학 중인 국제결혼 청소년 자녀의 교육 경험을 밝힌다. 어머니들이 초창기에 구성했던 ‘어머니 노릇’과, 현재 분화되어 지니고 있는 ‘어머니 노릇’이 자녀들의 교육 경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논리를 드러내고자 한다. 1절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자녀들의 교육 경험의 주요 요소로 제시했던, 다문화 배경과 친구 관계를 짚는다. 2절부터는 국제결혼 어머니들의 ‘어머니 노릇’이 자녀들의 학교 경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한국 교육의 신자유주의적인 특징과 연결하여 분석한다.

6장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결론을 내리고,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정리한다.

II.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실천적 감각 개념을 중심으로 부르디외 사회학을 소개하고, 한국 교육의 신자유주의화 및 한국 사회의 어머니 노릇에 관한 선행 연구를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이후 국제결혼가족의 교육 경험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어머니·자녀 각각의 측면에서 정리하고, 본 연구와 연결되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본 연구는 사회 공간이 다양한 자본의 불평등한 분배에 따라 구조화되며, 각 사회적 위치에 속한 사람들이 서로 다른 재생산 전략을 채택한다는 부르디외 사회학의 시각에 비추어 국제결혼가족의 교육경험을 분석한다(부르디외 1994; 보네위츠, 1997). 구체적으로는 서로 다른 사회적 공간에 속한 사람들이 주로 가족 및 학교에서 경험을 통해 획득하는 실천적 감각에 주목하고, 이 실천적 감각을 국제결혼 어머니들의 ‘어머니 노릇’을 이해하는 틀로 삼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어머니 노릇²⁾은 언제나 동일한 초역사적인 실체가 아니라, 배태된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구성물이라는 교육사회학과 가족사회학 이론(예를 들어, 박소진, 2007)의 시각에서 국제결혼 가족의 교육 경험에 접근한다. 그렇기에 국제결혼가족이 배태되어 있는 맥락으로서, 신자유주의적인 한국사회와 교육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신자유주의적 맥락에서 형성되어 온 한국의 ‘어머니 노릇’을 국제결혼 어머니들의 ‘어머니 노릇’과 비교하는 것은 국제결혼 가족의 교육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어서 국제결혼가족의 양육·교육 경험을 다룬 국내의 선행 연구들을 어머니·자녀 양 측면을 나누어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국제결혼 인구 집단

2) 모성(motherhood)이라는 용어와 혼용하여 쓰는 경우도 많지만, 본 논문에서는 그 실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어머니 노릇(mothering)이라는 용어를 이용한다.

의 팽창이 2000년대 이후 이루어졌기에,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영유아 혹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자녀가 영·유아 및 초등학교 시기에 가족이 겪는 경험들은, 중등학교 시기의 교육 및 양육과 연속선 상에 놓여있다. 따라서 이 선행 연구들을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어머니 노릇’ 이나, 자녀들의 교육 경험에 초점을 두어 재구성함으로서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으리라 여긴다.

1. 실천적 감각과 부르디외 사회학

“사회적 행위자들은, 어떤 기계적인 힘들에 예속되어 있고 강압적인 원인들(causes)에 따라 행동하는 입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합리적 행동 이론의 옹호자들³⁾이 생각하듯이 합리적 이유들(raisons)을 따르고, 전적으로 사정으로 상황을 잘 알고서(근본 원인을 잘 알고서; *Connaissance de cause*) 행동하는 의식적·인식적 주체들은 더 이상 아니다.

사실 ‘주체들’은 실천적 감각을 부여받은 행동하고 인식하는 행위자들이다. 이 실천적 감각은 선호물들, 비전과 분할 원칙들(보통 취향이라 불리는 것), 지속적인 인지적 구조들(본질적으로 이것들은 객관적 구조들의 체화가 낳은 산물이다), 그리고 상황의 지각과 적용된 대응을 방향 짓는 행동 도식들로 이루어진 획득된 체계이다. 아비투스들은 일정한 상황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한 이런 종류의 실천적 감각들 - 스포츠에서 이른바 경기 감각이라는 것이고, 현재의 게임 상황에서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임의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 - 이다.” (부르디외, 1997: 48-49)

3) 원문에는 다음과 같은 단서가 괄호로 달려있지만, 여기서는 인용문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각주로 따로 정리함. 기타 괄호로 달린 단서들은 모두 유지함. “시간이 있다면 나는 다음과 같은 점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즉 이 철학자들이 외관상으로는 전적으로 대립하지만 사실은 혼동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물들 및 원인들의 질서에 대한 지식이 완벽하고 또 선택이 전적으로 논리적이려면, 우리는 이 선택이 어떤 면에서 세계의 힘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예속과 다른지 알 수 없고, 따라서 어떤 면에서 그것이 하나의 선택으로 남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실천적 감각은 부르디외의 아비투스 개념을 구성하는 두 개의 요소 중 하나이다⁴⁾. 에토스 혹은 게임의 규칙이라고도 불리는 실천적 감각은, 가족 경험 혹은 학교에서의 경험을 통해 습관으로 누적된 “일상의 행위를 결정하는 도덕의 의식적이지 않은 내면화 된 형식” (보네위츠, 1997: 90)이다. 개인은 사회화 과정을 거치는 동안 실천적 감각을 내면화 한다. 이 감각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지며, 따라서 개인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지닌다.

하지만 부르디외는 실천적 감각은 각 개인이 지닌 사회적 위치에 결부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부모 혹은 가족이 지닌 사회적 위치와 성향이 1차적으로 개인에게 각인된다. 이후 개인은 내면화 한 부모의 사회적 위치와 성향에 기반을 두어, 성장하면서 접하는 새로운 경험을 해석·인지·반응한다. 이 과정을 통하여 각 사회적 위치에 해당하는 집단이 지닌 성향과 속성들이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

물론 실천적 감각은 계속해서 재구조화 된다. 초기에 가족을 통하여 부여된 실천적 감각이 이후의 경험들을 조건화 하지만, 새로운 상황은 실천적 감각의 조정 혹은 적응을 요구한다. 학교 경험이 실천적 감각의 재구조화 과정에서 지니는 중요성은 부르디외 사회학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부르디외는 같은 사회적 위치를 지니는 집단은 균질적인 실천적 감각을 지닌다고 본다. 특정한 사회적 위치에 결부되어 있

4) 아비투스 개념을 구성하는 다른 한 요소는 액시스(Axis)라 불린다. 실천적 감각과 마찬가지로의 과정을 통해 형성되나 신체를 통해 두드러지는 성향을 가리킨다. 예로서는 매일 지하철을 통해 출근하는 사람들이 평소에도 무의식적으로 어느 정도 다리를 벌리고 서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현시되는 실천 속에서 에토스와 액시스의 경계는 모호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방법론으로 관찰이 아닌 심층 면접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은 액시스 보다는 에토스에 가깝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비투스 대신 에토스, 즉 실천적 감각으로 개념을 국한하여 사용한다.

는 가장 개연성이 있는 실천적 감각의 형태가 있다. 비록 각 개인은 ‘개인적인’ 차이를 지니는 실천적 감각을 형성할 수 있지만, 부르디외는 그것을 집단적인 실천적 감각의 한 변이 형태로 간주한다. 이러한 변이는 개인적인 역사와, 개인이 획득한 또 다른 사회적 위치에 의해 발생한다.

부르디외가 제시하는 사회적 위치 개념은 전통적인 계급 혹은 계층 개념이 제기하는 고정된 피라미드 도식과는 차이가 있다. 사회적 위치는 부르디외가 “현실은 관계적이다” (부르디외, 1994: 16)라고 지적하듯이, 다른 계층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된다. 1차적으로는 한 사회 내에서 개인이 지닌 다양한 자본의 총량⁵⁾이 사회적 위치를 결정한다. 2차적으로는 소유한 자본의 총량 중에서 각각의 자본이 차지하고 있는 구성비에 따라 사회적 위치가 달라진다. 어떠한 자본이 사회적 위치를 구분하는 주요한 기능을 하는가, 각 자본의 교환 비율은 어떠한가, 무엇이 자본으로 기능하는가는(특히 문화적, 상징적 자본의 경우) 각 사회와 시대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부르디외는 프랑스 사회에서 사회적 위치를 구분하는 주요한 기준으로 경제적 자본과 문화적 자본을 든다. 하지만 소련 사회에 대한 분석에서는 “경제적 자본 -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 - 이 공식적으로(대부분 실제적으로) 게임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 (부르디외, 1994: 34)을 강조하며, 경제적 자본 대신 공공의 재화 및 서비스를 사적으로 전유할 수 있게 해주는 정치적 자본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별 사회가 자본의 분배, 정당성 등에 관하여 차이를 지닌다는 분석은, 특정한 사회 내에 존재하는 사회적 장을 구분하는 원칙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부르디외는 노동의 사회적 분할에 따라 형성되며, 직능 별로 사

5) 부르디외는 프랑스 사회를 분석하면서 자본의 종류를 경제적 자본, 문화적 자본, 사회적 자본, 상징적 자본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그런데 자본의 종류를 다양하게 구분함에도 불구하고 그 총량을 계산하여 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는 주장은, 달리 말하자면 특정 자본이 다른 자본으로 교환가능하다는 뜻이다. 부르디외는 여타의 모든 자본은 특정 조건 하에서 경제적 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김영화, 2012: 35-36).

회생활이 분화된 결과인 사회적 장을 중요한 분석 단위로 삼는다. 각각의 사회적 장은 그 장 내에서 절대적 위치를 점하는 목표와 규칙을 지닌다. 달리 말하자면 이 특정한 목표, 부르디외의 용어로는 일루시오(Illusio)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사회적 장을 구성한다. 그렇기에 누군가를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사회적 장은 명확한 경계를 지니지 않는다. 같은 양과 같은 구성의 자본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장에 속하냐에 따라 사회적 위치는 달라질 수 있다. 사람들은 특정한 장 내에 존재하는 게임의 규칙들을 준수하면서, 최대한 자본을 보존하거나 획득하고자 한다. 게임을 위한 전략 또한 사회적 장 내 각자가 지닌 지위에 따라 다르다.

사회적 장은 상대적 자율성을 지니기는 하지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대표적인 예는 국가의 형성과, 경제 논리의 확산을 들 수 있다. 부르디외는 국가의 생성은 상이한 여러 장의 통합 과정과 분리하여 파악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다. 국가는 상징적·물질적 폭력의 독점을 바탕으로 특정한 사회 내 자본들의 교환 비율을 좌우할 수 있는 힘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또한 역사적으로 바라볼 때 경제적 장이 점진적으로 자율화 되고, 자율을 넘어 다른 장들의 논리에 침투하는 현상도 두드러진다.

추가로 문화적 안내인 개념을 소개한다. 라루(Lareau, 2015)는 하위계층의 학생이 대학에서 타인과 의미있는 관계를 맺으면서 상류 계층에 호의적으로 구성된 대학 사회의 게임의 규칙을 습득하고, 결과적으로는 계층이동을 이뤄내는 과정을 드러냈다. 라루는 특정 사회적 장의 게임의 규칙을 알려주는 이 의미있는 타자를 ‘문화적 안내인(Cultural guide)’라고 정의했다. 이 때 문화적 안내인을 통해 습득한 게임의 규칙은 원래의 사회적 지위에서는 습득할 개연성이 낮았던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문화적 안내인 개념은 부르디외의 이론적 틀이 지닌 취약점인 ‘사회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는 의의를 지닌다.

부르디외가 프랑스 사회를 분석하면서 문화 자본의 구성 요소로 활용했던 클래식 음악 향유, 미술관 관람 등을 그대로 도입한 연구들은 한국 사회의 계급 재생산 양상을 설명하는데 있어 유효하지 않았었다(이성희, 2013). 한국 사회에서 자본들의 관계, 교환 비율, 자본 구성 요소는 프랑스 사회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각각의 영역에 관한 연구가 아직 충분히 누적되었다고 보기 힘든 상황에서, 부르디외의 이론적 기반을 적용하려는 시도는 한계를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부르디외 사회학의 관점을 활용하려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한국 사회에서 교육은 계층(혹은 사회적 지위)의 재생산 및 변화와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다. 부르디외 사회학의 주요 목표는 사회 재생산과 변화의 기제를 밝히는 것이다. 학교와 가족은 모두 계층 재생산의 주요 기제로 손꼽힌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 교육 경험을 다루면서, 부르디외의 이론적 배경을 활용하는 것은 적실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어머니 노릇’은 가족 내에서 여성들이 ‘어머니’로서 실천하는 모든 것을 가리킨다. 부르디외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떠한 이유로 인해 특정한 방식으로 실천하는가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리고 경험의 누적으로 말미암은 아비투스(習性)의 형성과 재구성이라는 설명을 내놓았다. 그렇기에 일상 속의 실천인 ‘어머니 노릇’의 구성 과정을 분석하는데 있어, 부르디외가 제시한 이론적 틀은 유용하다.

2. 한국 교육의 신자유주의화

신자유주의는 90년대 후반부터 한국 교육 내에서 심화되어 왔다. 민주화 이후 정권들은 당시 영·미를 중심으로 부상하던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였다.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사회 전반적으로 생겨난 자유주의적 가치에

대한 열망들은 신자유주의적인 변화에도 호의적이었다. 김영삼 정부는 ‘수요자 중심 교육 과정’을 천명하면서 학교 자율적 운영, 학교 선택제, 수준별 교육과정, 학교평가제 등이 포함된 5.31 교육안을 도입했다(김천기, 2012). 97년 외환위기 이후 IMF 구제 금융을 받기 위해 워싱턴 콘센서스를 수용하면서 한국 교육의 신자유주의화는 한층 탄력을 받았다. 정권변화와는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이어지던 신자유주의 경향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층 두드러졌다(박소진, 2009; 김천기, 2012). 중등교육 수준에서 탈평준화를 강화한 고교다양화 정책은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이었다.

신자유주의적 교육 정책은 개별 주체에게 교육 결과의 무한 책임을 상정할 뿐만 아니라, 계급재생산을 심화한다는 점에서도 비판을 받는다. 고교다양화 정책 하에서 특목고·자사고 등의 ‘좋은 고등학교’는 과거 대학이 차지했던 계급 구분의 기제를 대체했다(손준중, 2010). 학교에서는 선발의 기준으로 학생 개인의 능력을 전면으로 내걸고 있지만, 부모의 자원, 선호, 희망이 학생 개인의 교육적 성취를 좌우한다는 점은 은폐한다(오욱환, 2008). 서로 다른 학교로 나뉜 학생들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다른 교육을 경험하고 향후의 교육적 성취도 달라진다. 또한 신자유주의 통치성은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도 대상으로 삼는다. 학교는 다른 학교와 자신들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국가의 평가 속에서 ‘성과’를 내야 하는 위치에 놓인다. 그 결과 학교들은 학력이 높은 학생들에게 관심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김천기, 2012). 하위 계층 학생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학교에 따른, 학교에 의한 구분으로 인해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재생산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 교육의 신자유주의적 변용과 그로 말미암은 교육계층화 현상을 지지하는 연구들은 많다. 특히 고등학교 진학 및 대학교 진학 단계에서 교육계층화 현상이 두드러진다. 취학 전 교육 및 보육 영역에서 계층에

따른 차이는 국가의 복지 확대에 의해 양적인 면으로는 줄어들었지만, 질적인 영역에서는 여전히 존재한다(김기현·신인철, 2010). 이러한 조기 교육 경쟁은 고등학교 진학 경쟁과 연관이 깊다. 초등학교(이광현, 2012) 및 중학교 수준(김성식·송혜정, 2009) 모두에서 특목고·자사고 진학 의도는 사교육 참여 수준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었다. 가족의 사교육 지원이 고등학교 진학에 미치는 영향은 학생 노력이나, 학교 영향보다 크다(김성식·류방란, 2008). 사교육비를 제외하더라도,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의 교육 성취 사이의 연관은 크다. 예를 들자면, 학교활동 참가, 학습·생활지도 등 직접적인 부모의 교육적 관여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차이가 난다. 또한 부모의 교육적 관여가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도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변수용·김경근, 2008). 대학교 진학 단계로 넘어오면 학생의 학업 성취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두드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교육 수준과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수준은 진학하는 대학이 2년제인가, 4년제인가, 그리고 진학하는 대학의 위세는 어떠한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변수용·김경근, 2010). 대학교 진학 이후에도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하다.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영어 능력과 졸업 후 진로 계획 차이는 대학생들의 학교 경험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였다(김미란, 2014)

3. 신자유주의 변용과 한국의 어머니 노릇

한국 사회 및 교육의 신자유주의적 변용은, 자연스럽게 자녀 교육 및 양육 책임을 부여받은 어머니들의 실천에도 영향을 끼쳤다. 선행 연구들은 신자유주의가 확산되면서 한국에서 ‘강남 엄마’로 대표되는 전업 어머니 이데올로기가 강화되었다고 지적한다(박소진, 2007; 박소진, 2009;

박혜경, 2009). 과거 한국 어머니의 교육열은 ‘치맛바람’ 등의 담론 아래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표상되었다. 그러나 자기 관리와 가족 경영이라는 신자유주의적 구호 아래, 자녀 교육에 투신하는 어머니들은 ‘매니저 엄마’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표상되기 시작한다(박소진, 2009). 자녀 교육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매니저 엄마’가 되기 위해서는 자녀 교육에 전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전업주부여야 한다(박혜경, 2009). 하지만 역설적으로, 신자유주의로 인해 촉발된 한국 사회의 경제적 변형은 그 어머니 역할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을 줄어뜨리게 만들었다. 남성생계부양자의 지위 불안정은 여성 배우자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촉진한다(최선영·장경섭, 2012). 1997년 외환위기와 2000년대 고용 ‘유연화’는 남성들의 노동 생애를 불안정화 하였다. 그 불안정성이 기혼여성의 재취업이라는 형태로 전이되었다 볼 수 있다. 또한 조기 교육 등 사교육 경쟁이 심화되면서, 교육비를 충당하고자 기혼여성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기도 한다(이재경, 2004; 조혜선, 2004; 박혜경, 2009).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시장에 참여해야 하는 많은 어머니들이, ‘강남 엄마’ 만큼 자녀에게 집중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 스스로를 부족한 어머니라고 여긴다는 보고들이 있다(이재경, 2004; 이두휴, 2008; 박혜경, 2009).

물론, 계층에 따라 어머니 노릇은 다르게 나타난다. 전업 어머니/매니저 엄마 이데올로기가 계층을 막론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동원 가능한 자본의 차이 때문에 결국 어머니 노릇은 각 개인 및 가족이 놓인 사회적 위치에 따라 다르게 구성될 수밖에 없다.

계층에 따른 어머니 노릇은 다음 몇 가지 특성을 보인다(이두휴, 2008). 첫째, 상류 계층 어머니들은 사교육을 이용하는데 있어 사교육의 질을 중시하고, 하류계층 어머니들은 사교육의 양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인다. 둘째, 상류 계층 어머니들은 자녀의 교육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반면, 하류계층 어머니들은 자녀의 자율성을 강조한다. 셋째, 상류 계층 어머니들은

자녀 교육에 관련된 정보를 폐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지만, 하류 계층 어머니들은 개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쉽게 공유하는 특성이 나타난다. 가족의 계층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지는 와중에서도, 차이를 변형하는 지점이 있다. 하류 계층 어머니라 하더라도 자녀가 높은 학업 성취를 보이는 경우, 상류 계층 어머니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가 있다. 중학교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어머니가 직접적으로 학교로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줄어들면서 계층 구분이 희미해지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자녀의 학업 성취와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사이 연관은 뚜렷하며, 직접적인 관여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자녀들의 학교 진학 및 사교육 관리 측면에 있어서는 여전히 계층 차이가 유효한 지점이 있다.

4. 국제결혼 어머니들의 어머니 노릇

국제결혼 어머니의 어머니 노릇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유아와 초등학교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했다. 자녀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머니 노릇이 구성되는 형태가 달라지지만, 초등학교 시기의 학교 경험이 중·고등학교의 학교 경험과 관련된다는 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을 고려하여 관련 연구들을 살펴볼 필요는 있다. 이 연구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제결혼 어머니들은 한국 사회의 어머니 노릇 담론에 영향을 받는다. 둘째, 국제결혼 어머니들의 어머니 노릇은 자녀들이 공적 교육 체제로 들어가면서 한국 맥락에 뚜렷하게 노출된다. 셋째, 국제결혼 어머니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동원하는 여러 자본 중 초국적 연결망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국제결혼 어머니들은 한국 사회의 어머니 노릇 담론에 영향을 받는다. 한국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국제결혼 어머니는 자녀 교육의 주된 책임을 맡게 된다. 자녀가 영·유아기 시절일 때는 한국 학부모를 보면서 출신 사

회의 자녀 교육 규범과 다른 경쟁적인 면에 불안과 불편을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 교육에 헌신적인 한국 여성들을 따르게 된다(이은아, 2013; 이부미, 2016). 저소득층, 직업을 가진 어머니들이 한국의 ‘전업 어머니’ 노릇을 실천하지 못하는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양상은 국제결혼 어머니에게도 그대로 나타난다. 아울러 국제결혼 어머니들은 자신의 한국어 능력, 한국 사회·문화에 대한 지식 부족을 어머니 노릇을 수행하는데 장애요소라 느낀다(윤명숙·이해경, 2011; 이은아 2013). 한국의 ‘전업 어머니’ 담론을 받아들이는 국제결혼 어머니들은 저소득/이주 배경이라는 두 조건 아래에서 자신의 어머니 노릇을 부정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국제결혼 어머니가 한국의 경쟁적인 교육과, 자녀 교육에 투신하는 어머니 역할을 그대로 내면화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이유정·김병수, 2013; 이소희 외, 2014). 이러한 경우 국가 간 양육관 차이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소희 외(2014)는 필리핀 출신 어머니들이 자녀가 원하지 않는 사교육이나, 방과후교육은 시키지 않으려 한다는 보고를 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드러나는 불일치를 고려할 때, 국제결혼 어머니들이 한국에서 어머니 노릇을 구성해 나가는 양상은 보다 면밀히 파고들 필요가 있다.

국제결혼 어머니들의 어머니 노릇은 자녀들이 공적 교육 체제로 들어가면서 한국 맥락에 뚜렷하게 노출된다. 자녀가 어린이집을 가고 유치원에 들어가는 시기가 오면 국제결혼 어머니들은 자녀 교육에 대해 구체적으로 걱정하게 된다. 초등학교 입학이 다가오면 걱정은 더 커진다. 한국 출신 어머니들도 자녀가 처음 학교에 들어갈 때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비슷하겠지만, 국제결혼 어머니들은 언어 및 사회문화적 차이 때문에 가정 통신문을 읽고, 준비물을 챙기는 것조차도 어려워한다(조혜영·서덕희·권순희, 2008; 윤재희·유향선, 2011; 남부현·김옥남, 2012). 국제결혼 어머니들은 먼저 자녀를 학교에 보냈던 다른 국제결혼 어머니나, 친한 한국 어

머니들의 경험을 들으며 자녀가 한국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게 돕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 한국어 노출 빈도를 높이기 위해 일찍부터 어린이 집에 보낸다거나, 스스로 부모·한국어 교육을 받는다. 또한 자녀의 학교생활을 알기 위해 혹은 학교의 요청에 따라 학교에서 하는 여러 활동에 참여한다(조혜영·서덕희·권순희, 2008; 류진아 2011; 오민석 2011; 윤재희·유향선, 2011; 이채원 외, 2013; 김종훈, 2014). 그러나 시간이 없거나, 한국어에 자신이 없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이민경·김경근, 2010) 직장에 다녀야하기 때문에 부담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남부현·김옥남, 2012), 다른 한국 학부모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김종훈, 2014)도 존재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학부모 활동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자녀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머니 노릇이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녀의 공적 체계 내 위치 변화에 따라 어머니가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제결혼 어머니들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머니 노릇을 구성하기 위해 여러 가용한 자원을 동원하는데, 그 중 일부는 초국적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필리핀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선행연구들은(김정선, 2012; 이은아, 2013) 필리핀 결혼이주여성들이 자녀를 본국으로 보내 영어 교육을 받게 한다는 보고를 하고 있다. 달리 말하자면 초국적 가족 네트워크를 통한 자녀 교육 공간의 확대라 볼 수 있다. 한국 내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제결혼 어머니가 자녀를 모국에 보내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은 “계급 이동을 위한 주요 전략” 이자, “경쟁적인 자녀 교육과 사교육비 부담, 성별화 된 자녀교육의 책임과 역할, 그리고 다문화 가족에 대한 차별 등에 대한 대응 전략(이은아, 2013: 139)” 이기도 하다. 이러한 질적 연구의 지적은 정부에서 수행한 조사에서도 간접적으로 일부 확인할 수 있는데, 2015년 기준 결혼이주여성의 47.3%는 모국에서 자녀를 공부시킬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교육 수준이 대학 졸업 이상인 경우 그 비율은

62.1%로 올라갔다. 자녀를 모국에서 공부시키고자 하는 이유는 ‘모국의 언어와 문화 습득’이 35.6%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출신 국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 필리핀 출신은 58.9%로 가장 강력한 의향을 보였다. 반면에, 베트남 출신은 39.7%만이 모국에서 자녀를 공부시키고자 했다(국가통계포털, 2016). 초국적 사회적 연결망을 자녀 교육에 동원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로 얻어지는 자본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평가 받느냐는 문제는 전략을 활용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할지라도, 국제결혼 가족이 한국 사회 내에서 지니는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취약하기에, 그리고 초국적 연결망이 국제결혼가족 그 자체에 배태되어 있기에 “두 개의 로컬이 자신에게 허용하는 기회와 자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하향식 동화에 저항(김정선 2010: 22)” 하는 전략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5. 국제결혼가족 자녀들의 학교 경험

국제결혼가족 청소년 자녀의 교육 경험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얼마 없다. 하지만 ‘다문화’라는 배경으로 인해 형성되는 낙인감과, 국제결혼 가족 자녀들의 낮은 학업성취도를 지적하는 연구 결과는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중등학교 교육 경험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기에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문화’ 학생들은 외모, 언어 혹은 ‘다문화’라는 구분 때문에 낙인감과 차별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낙인감과 차별에 대응하는 방식에는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방식도 있지만, 자신을 숨기는 방식도 있는데 ‘다문화’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방과후학교나, 캠프 등의 제도적 구분이 학생들이 숨기고자 하는 이주 배경을 가시화하여 심리적 갈등을 발생시키기도 한다(전은희, 2012; 김수미·정경은, 2013; 김기현·이재희·홍혜미, 2013;

박미숙·이미정, 2014). 하지만 농촌지역의 ‘다문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질적 연구들은 ‘다문화’라는 배경을 지니고 있다 하여 꼭 낙인감 및 차별을 경험하지는 않으며, 학교 및 지역 맥락에 따라 다르다고 주장한다(권해수, 2011; 서덕희, 2011; 강일국, 2015). 학생 수가 소규모이기에, ‘다문화 학생’들의 상대적인 비중이 높고, 교사들의 관심이 높은 농촌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학교 경험에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보고들이 있다. 권해수(2011)는 같은 농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면에서 읍으로 전학 간 중학생들이 심각한 학업적 위기를 겪는 사례를 보고했다. 그리고 그 원인으로는 읍내 학교가 도시 학교와 마찬가지로 학생 수가 대규모이기에, ‘다문화 학생’들의 상대적인 비중이 적으며, 교사들이 관심을 쏟기 힘든 맥락 하에서 차별을 경험하기 때문이라 주장했다. 따라서 낙인감과 차별 경험을 ‘다문화’ 학생들의 학교 경험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되, 학교 및 지역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다문화’ 가족 학생들은 한국 학생들 평균과 비교해 볼 때 학업 성적이 낮다(김광혁, 201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그 원인을 다문화 가정의 평균적으로 낮은 가구 소득 때문이라 간주할 수도 있지만, 저소득층끼리 비교할 경우에도 국제결혼가족의 성적이 더 낮은 편이라는 보고를 고려하면 학업 성적과 연결될 수 있는 요소들을 다양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박윤경·이소연(2009)은 전국 단위로 실시한 설문 조사를 통해, ‘다문화 학생’들이 ‘일반 학생’들보다 학교생활이나 교사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학업 성취도를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결론을 내놓은 바 있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할 때, 국제결혼 어머니들의 ‘어머니 노릇’과 청소년 자녀들의 학업 성취 사이의 연관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6. 소결

본 연구는 가족과 교육이 한국 사회의 재생산·변화에 있어 핵심적이라는 입장을 취하여, 이 입장과 친화력이 큰 부르디외의 이론적 자원을 활용하고자 한다. 부르디외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실천에서 드러나는 차이가 그들의 사회적 지위와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다고 분석한다. 사회적 지위에 따라 습관으로 누적된 실천은, 다시 사회적 지위를 형성한다. 특히, 연구에서 주목하는 요소는 ‘일상의 행위를 결정하는 도덕의 의식적이지 않은 내면화 된 형식’ (보네위츠, 1997: 90)인 실천적 감각이다.

국제결혼가족은 신자유주의적인 한국 교육 제도 내에서 자녀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 사회의 신자유주의적인 교육 제도는 계층 이동성을 약화시키고, 그 원인을 개별 가족 및 개인의 책임으로 돌린다. 국제결혼가족은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낮으며, 어머니가 이주 이전에 지녔던 자본들이 한국에서 가치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 어머니가 자녀 교육의 전면에 나서는 한국 맥락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학령기 자녀들은 평균적으로 낮은 학업 성취를 보이는데, 동일한 저소득층 내에서 비교할 때도 더 낮은 성취를 보인다. ‘다문화’라는 낙인감도 중요한 어려움이다. 국제결혼가족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는데, 그 중 초국적 연결망은 ‘결혼 이주’라는 지위가 배태하고 있는 자원으로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러한 맥락들을 고려하면서, 어머니를 포함한 부모의 역할과 실천 그리고 자녀의 역할과 실천 모두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Ⅲ.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심층 면접 방식을 이용한 질적 연구이다. 2017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19명과의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다. 어머니는 12명, 청소년 자녀는 7명이 참여했다. 심층 면접은 1회씩 수행했다. 심층 면접은 보통 2시간에서 2시간 반이 소요되었다.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면서 함께 작성한 인구학적 질문지, 인터뷰 전후로 작성한 현장 노트, 관련 문헌 등을 자료로 활용했다. 자료 분석 과정에서 더 파악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추가 면접, 전화 통화, 메신저를 통하여 보충하였다. 연구의 모든 과정은 인하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용하는 1차 자료는 심층 면접 내용이다. 면담은 반구조화 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실시했다. 어머니의 경우 자녀 교육·양육 경험을 중심으로, 모국의 사회적 연결망 및 한국 내 제도 이용 경험, 어머니 자신의 원 가족 내 교육 경험을 함께 질문하였다. 자녀의 경우 본인의 학업 경험을 중심으로, 어머니 나라와의 사회적 연결망 및 한국 내 제도 이용 경험, 부모님의 교육 방침에 대한 생각 등을 질문하였다. 면담 내용은 연구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하고, 전사하였다.

문헌 연구를 통하여 파악한 내용과, 현장 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들 사이를 오가면서 연구참여자의 경험 중 의미 있다고 판단되는 진술들을 정리했다. 어머니-청소년 자녀가 모두 인터뷰에 참여한 7가족의 전사 자료를 가지고 인과관계 및 시계열을 고려하여 프로파일을 만들었다. 정리한 진술과 프로파일 자료를 바탕으로 주제를 만들고, 주제에 따른 각 경험의 본질을 기술하고자 했다.

1. 사용한 질적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국제결혼가족의 교육 경험을 탐색하기 위해 심층 면접 방식을 이용했다. 다만, 회고적인 진술이 지닌 부정확성을 고려하여 어머니·청소년 자녀의 경험을 종합하고, 어머니 자신이 모국에서 겪은 교육 경험은 참고적인 수준에서 이용했다.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했다.

첫째, 연구 참여자의 선정은 최대 다양성 추구 표집에 의거했다. 다양한 맥락에 놓여있는 가족의 경험을 포함하기 위한 기준으로, 출신 국적의 다양성에 주목했다. 초기 국제결혼 인구 구조의 특성상 현재 중등학교 이상 자녀를 둔 어머니는 일본, 중국(조선족 및 한족), 필리핀 출신이 대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 중국, 필리핀뿐만 아니라 태국, 몽골, 베트남 출신 이주 여성들도 포함하였다. 2005-06년 이후 국제결혼 이주 여성 중 동남아시아 출신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대한 다양한 국가 출신을 포함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둘째, 연구 참여자는 눈덩이 표집법을 통해 모집했다. 중·고등학교 이상 자녀를 둔 국제결혼 어머니들 중 대다수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치되기 시작한 2008년 이전에 자녀를 초등학교에 입학시켰다. 공적 지원 기관과 관계를 맺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현재 시행 중인 다문화 정책이 영·유아 자녀를 둔 가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연구참여자 어머니들 대부분이 경제활동에 참여 중이기 때문에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없거나 부족했다. 다문화센터 등 공식적인 경로를 통한 접근은 연구참여자 확보라는 성과 면에서 효과적이지 않았다. 연구의 목표인 국제결혼 어머니들은 한국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면서 자신의 에스닉 집단뿐만 아니라, 그 외 배경의 결혼이주 여성들과도 연결망을 형성한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 눈덩이 표집이 효과적일 수 있었던

것은 그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자료 수집은 자료의 포화 상태에 이를 때까지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여기서 자료의 포화는 출신 국적에 따른 차이가 아닌, 한국 맥락 하에서 국제결혼 가족의 중·고등학교 자녀와 어머니들이 겪는 교육 경험에 주목했다. 연구에서 최대 다양성 표집을 추구하기 위한 기준으로 출신 국적을 이용하기는 했으나, 본 연구는 개별 에스닉 집단의 경험 차이를 이해하고자 하기 보다는 이주라는 맥락 하에서 공통적으로 마주치는 교육 경험에 주안점을 두었다.

넷째, 질적 방법에서 연구도구로 삼는 연구자 자신의 역량을 끌어올리려 노력했다. 연구자는 2014년 말부터 2년 이상 베트남 출신 초등학교 국제결혼 자녀를 일주일에 한 번씩 멘토링 했다. 2016년 말부터는 현재까지 중국 출신 중학생 국제결혼 자녀를 일주일에 한 번씩 멘토링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천 소재 다문화 지원기관들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정기적으로 참여했다. 다양한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국제결혼가족의 한국 교육 경험에 관한 현실적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했다.

2.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사이드먼(2009)이 제시한 방식을 따라 프로파일링과, 코딩을 통한 주제 발견을 병행하면서 자료를 분석했다. 분석의 목적은 “자료에서 패턴을 찾고, 왜 그런 패턴이 발견되는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찾는” (한유리, 2015: 99) 것이었다.

프로파일링은 전사 자료를 일관성 있게 요약하는 것이다. 연구자는 질문의 중심영역에 따라 시계열, 인과관계를 기준으로 전사 자료를 프로파일링 했다. 어머니-자녀가 인터뷰에 모두 참여한 7 가족이 프로파일링의

대상이었다. 어머니와 자녀의 프로파일 자료를 연결하여 읽으면서, 첫째,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의 경험을 연결하여 종합하여 이해하고자 노력했다. 둘째, 어머니-자녀를 연결하여 파악한 개별 가족 사례를, 다른 가족 사례와 비교하여 유형을 찾아내고자 했다. 어머니만 인터뷰에 참여한 5 가족 사례는 프로파일링한 가족 사례를 바탕으로 발견한 유형을 보충하는 용도로 활용했다.

코딩을 통한 주제 발견 과정에서는 사이드먼(2009)이 제시하는 지침을 따랐다. 먼저, 연역적 과정이 아니라, 귀납적인 접근 방식을 취했다. 프로파일링과는 별개로, 전사한 면담 자료에서 중요하다고 느껴지거나, 흥미롭다고 느껴지는 내용을 중심으로 코딩을 실시했다. 이후 코딩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숙고했다. 떠오르는 생각들을 연구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론적 배경과 연결하여 자유롭게 기술했다. 이 과정에서 특정한 주장에 천착하지 않고자 했다. 사례 내, 사례 간 코딩한 내용을 읽어가면서 더 넓은 의미를 포괄하는 주제를 찾고자 했다. 코딩-주제 발견 과정은 프로파일링을 통해 추상적으로 파악한 어머니-자녀 경험 사이의 연결 논리, 각 가족 사례 비교와 유형화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프로파일의 비교와, 전사 자료의 코딩-주제 발견 과정은 순환적으로 이루어졌다. 패턴을 발견하고, 아이디어를 조직화하면서 연구자가 찾아낸 의미를 더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주제를 찾는 과정은 반복되었다. 분석은 인터뷰를 통해 형성된 1차 자료만을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사 자료와 프로파일링 자료를 오갈 뿐 아니라, 선행 연구 자료들까지 계속해서 읽어가며 분석을 실시하였다. 선행 연구 자료를 포함한 분석 과정에서 이론적인 배경이 더욱 구체화 되었다.

글쓰기 과정 또한 자료 분석 과정과 분리되지 않았다. 연구자는 논리적으로 주제를 배치하고 제시하고자 시도하면서, 초창기 형성했던 의미의 구조를 조정하기도 했다.

3. 연구참여자

<표 1> 연구참여자의 기본 인적 사항 및 가족 배경

가족 구분	모출신	가족 내 지위	가명	나이 (만)	학력 정보	월평균 가구소득	월평균 교육비용	직업정보 (모/부)	
A	중국	어머니	홍화	37	전문대졸 (3년제, 중국-산림)	700만	80만	연구 보조원 (생명연구소)	엔지니어
		첫째 딸	미영	14	중 3				
B	일본	어머니	유이	42	대학원졸 (석사, 한국-특수교육) ⁵	500만	75만	일본어 강사 (기업 내)	사업 (전자 부품)
		첫째 딸	예리	16	고 2 (인문계-미술중점)				
C	우즈베크	어머니	한미	36	중졸	350만	70만	회사원	일용직 (건설 노동)
		첫째 아들	수재	13	중 2				
D	일본	어머니	도모코	45	대졸 (4년제, 일본-문학)	300만	20만	일본어 강사 (대기업 사원, 외고 학생 등)	일용직 (건설 노동)
		첫째 아들	준식	15	고 1 (인문계)				
E	일본	어머니	케이코	50	고졸	250만	15만	자영업 (노점상)	일용직 (인테리어 기술자)
		둘째 딸	유하	18	전문대 1 (3년제 - 유아교육과)				
F	베트남	어머니	자민	43	대학 중퇴 (4년제, 베트남-회계)	250만	없음	없음	일용직 (건설 노동)
		둘째 아들	한배	17	고 2 (인문계-문과)				
G	몽골	어머니	바안	49	중졸	230만	18만	없음	미확인 ⁶
			성진	14	중 3				
H	중국	어머니	지혜	44	전문대졸 (방송통신, 한국-중국어) ⁵	200만	60만	계약직 공무원	
		첫째 아들	영도	18	대 1 (4년제, 한국-물리학)				
I	필리핀	어머니	미예	51	대졸 (4년제, 필리핀-회계)	180만	18만	없음	회사원 (물류 및 영업)
		첫째 아들	대환	17	고 3 (특성화고-스마트미디어)				
J	일본	어머니	미야코	50	대졸 (2년제, 일본-치기공)	80만	없음	일본어 강사 (대기업 사원, 주민센터 등)	없음
		셋째 딸	하나	16	고 2 (인문계-문과)				
K	필리핀	어머니	린	40	대졸 (4년제, 필리핀-교육)	78만	없음	바리스타 인턴	
		첫째 딸	유라	16	고 2 (특성화고-상업)				
L	태국	어머니	지현	50	대졸 (4년제, 태국-전통무용)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첫째 아들	세류	12	중 1				

주: 1) 연구참여자의 희망한 가명이 본명과 너무 비슷하여 신원이 드러날 위험이 있거나, 이름으로 이해되기 곤란한 경우 새로 가명을 부여함. 2) 나이는 인터뷰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함. 3) 연구 참여자 가족의 배치 순서는 월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함. 4) 미영의 경우 연구참여자 가족에 사정이 생겨 인터뷰를 실시하지 못함. 준식과 유하는 인터뷰 참여를 요청했으나 거부함. 성진과 대환은 학교 학사 일정으로 인해 인터뷰를 방학으로 미룸. 5) 영도 어머니는 중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한국에서 방송통신대를 진학했음. 예리 어머니는 일본에서는 평생교육과 심리학을 복수전공하고, 한국에서는 3년 전 대학원을 진학하여 특수교육 전공으로 졸업함. 6) 확인을 위해 물어봤으나 답변하지 않음 7)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표는 <부록 1>을 참고할 것

본 연구의 심층면접 대상자는 중·고등학교 이상 재학생과,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그들의 어머니이다. 연구참여자의 기본 인적 사항 및 가족 배경은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국제결혼 어머니는 평균적으로 17년 정도의 한국 거주 경험을 지니고 있다. 한국에서 다문화 정책이 대두되기 시작한 2008년 이전에 첫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사례가 대다수이고, 일부는 첫 자녀가 중학교에 입학하기도 했다.

현재의 사회경제적 지위⁶⁾를 기준으로 보자면, 중산층으로 구분 가능한 가족은 예리 및 미영의 가족이다. 저소득층으로 구분 가능한 가족은 하나, 유라, 세류의 가족이다. 이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본 연구가 주목하여 살펴본 중·고등학교 시기 자녀의 학업 경험을 고려할 때 이 기간 동안의 가구 소득의 변화 및 그 시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영도 가족처럼 영도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시기에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하락한 경우, 영도의 중·고등학교 경험을 지금의 사회경제적 지위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가정 중 다수는 첫 자녀가 중학교에 입학하기 이전에 남편의 사업 실패 및 실직 때문에 사회경제적인 지위의 하락을 경험했다.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사회경

6) 소득층을 분류하는 기준은 월평균 가구 소득, 아버지의 직업 지위, 어머니의 맞벌이 여부, 주관적인 사회적 지위를 중요하게 고려한다. OECD 기준을 적용할 때 중산층은 중위소득의 +50%~-50% 사이에 있는 가구를 뜻한다. 2015년 기준 균등화 중위소득은 216만원이다. 각 가구의 구성원 수를 고려하여 계산했을 때(중위소득 * 가구 구성원 수의 제곱근), 경제적인 기준으로 중산층에 해당하는 가정은 미영, 예리, 수재, 준식, 유하, 한배, 성진, 대환의 가족이다. 그러나 중위소득의 50%까지 중산층으로 편입시키는 기준은 한국인의 주관적인 지위 의식과 괴리가 크다는 비판이 있다(현대경제연구원, 2013). 가구의 자산을 측정 기준에 포함하여 괴리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지만(김정훈·김을식·이다경, 2016) 가구 자산에 대한 정보는 본 연구에서 이용하는 인구학적 질문지로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다. 때문에 연구참여자의 주관적인 사회적 지위와, 각 가정 내 아버지의 직업 지위를 함께 고려했다. 인구학적 질문지에 포함된 주관적 계층 지위 질문(라이컬트 척도, ‘상상’부터 ‘하하’까지 6수준)와 아버지의 직업 지위를 바탕으로 하여 미영 어머니와 예리 어머니를 중산층으로 간주했다.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의 분류에도 현재 소득뿐만 아니라, 주관적 계층 지위, 아버지의 직업 지위를 함께 고려하여 하나, 유라, 세류를 저소득층으로 간주했다.

제적 지위가 비교적 일정했던 경우는 미영, 수재, 성진, 대환⁷⁾, 유라 가정이다.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 중 가구 소득 및 남편의 직업과는 별개로 결혼 후 일 경험이 없는 경우는 없었다. 연구참여자들의 일 경험은 다양한데, 각자가 보유한 언어 자원을 활용하는 경우와 활용하지 않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한국에서 어머니들의 모어 언어 자원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경우⁸⁾ 이를 바탕으로 하여 직업을 얻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교육 시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예리 어머니와 하나 어머니는 오랫동안 모어인 일본어를 기반으로 성인 언어 교육 시장에서 일하고 있다. 유사하게, 성진 어머니와 영도 어머니는 영어, 중국어를 기반으로 청소년 언어 교육 시장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다. 준식 어머니는 올해부터 일본어 과외를 하고 있다. 교육 시장이 아니더라도 언어 자원과 본인의 대학교 전공을 바탕으로 일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한배 어머니는 베트남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건설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봤던 경험이 있다. 미예 또한 무역 회사에서 회계 일을 했었다. 한국에서 언어 자원에 대한 수요가 적은 성진 어머니(몽골 출신), 수재 어머니(태국 출신), 유라 어머니(필리핀 출신⁹⁾), 세류 어머니(태국 출신)은 언어 자원과는 관련이 없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영 어머니의 경우 중국어에 대한 한국 내 수요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언어자본과는 관련 없는 연구보조 일을 하고 있다. 몇몇 어머니들은 한국 사회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였다는 점을 바탕으로 공적 기관에서 ‘다문화’ 관련 업무를 맡기도 한다. 영도 어머니의 경우가 그러하며,

7) 대환 가정은 현재 아버지 혼자 일하는 상황으로 가구소득은 180만원이나, 작년 말까지 대환 어머니가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등 계속해서 일을 했었다. 당시의 소득을 고려하면 대환 가정의 소득은 월 340~350만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 점을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지위를 판단했다.

8) 국제결혼 어머니들의 언어 자원에 대한 수요는 개별 언어 및 국가가 지닌 전세계적인 위계뿐만 아니라(영어, 일본어, 중국어), 한국이 이주자의 모국과 맺고 있는 경제적 관계(베트남어)도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9) 유라 어머니는 필리핀 출신이지만 영어 실력은 유창하지 않았다.

한배 어머니 또한 마찬가지로의 업무를 봉사활동으로 하고 있다.

연구에 참여한 자녀 대부분은 현재의 경제적 수준과는 상관없이 자신이 같은 반 친구들에 비해 사교육을 과거에 적게 이용했다거나 현재 적게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예외적인 경우라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수학, 영어 과외를 계속하고 있는 수재를 들 수 있다.

예리, 유라, 영도는 예고 및 과학고를 지망했었으나 포기하거나, 떨어진 경험을 가지고 있다. 예리는 일반계 미술중점학교를 진학했고, 영도는 일반계로 진학했는데 1년 후에 학교가 과학중점학교로 선정되었다. 유라는 상업계 특성화 고등학교로 진학했다.

상당수의 자녀들은 특성화 고등학교로 진학했다. 대환은 어머니의 말을 따르자면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일반계 학교를 다니다가 3학년 때 특성화 고등학교로 전학을 가서” 스마트 미디어를 전공하고 있다. 대환의 여동생은 처음부터 특성화 고등학교를 진학해서 행정을 전공하고 있다. 한배의 형은 해양과학고를 졸업했다. 현재는 선원으로 일하고 있다. 유하는 고등학교 때 문화콘텐츠를 전공했었다. 성진 어머니 또한 “성진이가 컴퓨터를 좋아한다” 라고 하며, 성진을 특성화 고등학교로 보낼 생각을 하고 있다.

일반계 고등학교를 진학한 경우에도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본인들의 표현에 따르자면 “점수 따기 좋은” 고등학교를 갔다. 무작위 추첨이라는 일반계 진학 방식을 고려할 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한배나 하나처럼 고등학교 진학 과정에서 “점수 따기 좋은” 고등학교를 우선순위로 고려한 경우도 있었다. “점수 따기 좋은 학교” 라는 기준은 일반고가 아닌 특성화고 진학을 희망한 유라에게서도 나타났다.

연구참여자 가족 중에서는 자녀가 대학교에 진학한 사례도 있었다. 그 중 서울 4년제 대학에 진학한 경우는 없었다. 대학생 중 유일하게 연구에 참여한 영도는 인천 4년제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하고 있다. 유하는 서

울 3년제 전문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있고, 유하의 큰언니도 부천에 있는 4년제 대학에서 마찬가지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있다. 하나의 큰언니는 충남 4년제 대학에서 환경생명과학공학과를 다니고 있고, 작은 언니는 성남 4년제 대학에서 간호학과를 다니고 있다.



IV. 국제결혼 어머니의 어머니 노릇 : 자녀의 성장과 한국 경험에 따른 변화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기존의 연구들은 국제결혼 어머니들도 한국의 어머니 노릇 담론에 강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윤명숙·이해경, 2011; 이은아, 2013; 이소희 외, 2014; 이부미, 2016),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노력하거나(윤명숙·이해경, 2011; 이부미, 2016) 이와 반대로 사교육 투자비용 부담, 한국어 부족과 같은 한계 속에서 비판적으로 거리를 둔다고(이은아, 2013) 보고하고 있다. 출신 국가의 양육관은 이 과정에 영향을 주지만, 같은 국적 출신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고려할 필요가 크다(이소희 외, 2014, 이부미, 2016).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교육 체계 내 위치가 변화하고, 어머니들이 한국을 경험해 나가면서 국제결혼 어머니들의 어머니 노릇이 변화하는 양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연구참여자 어머니들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현재는 다양한 어머니 노릇 구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자녀 교육 초기에는 모국에서 자신이 자라왔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이 때 가족구조라는 맥락은 중요한데, 일부 연구참여자들의 경우에는 시어머니가 영향력을 강하게 행사하여 연구참여자 어머니들이 자신들의 방식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을 막기도 했다. 자신의 방식을 적용하던 어머니들이 한국 교육 맥락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은 자녀가 어린이집·유치원이라는 한국 공적 교육 영역에 들어가고 난 이후였다. 사교육 시장의 일 경험도 중요한 요소로 보인다. 이후 한국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 수준이나 그에 따른 실천은, 한국 교육과 관련된 경험을 얼마나 하느냐

와, 한국 교육에 대해 알려주는 누군가의 조언을 수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양상을 보였다. 한국 교육과 관련된 경험은 공교육 참여, 사교육 이용, 사교육 시장에서의 일 경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험의 양이나 질은 국제결혼 어머니들이 동원 가능한 다양한 자본에 따라 대별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어머니 노릇을 한국의 어머니 노릇과는 다르게 구성하고 있었다. 한국 어머니들의 어머니 노릇을 받아들이는 연구참여자도 있었는데,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사례는 동원 가능한 자본의 양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그 대신에 한국 사람들이 알려주는 “사는 방식”을 수용하는지 여부를 중요한 구분점으로 간주했다.

이 장에서는 연구참여자 어머니들이 초창기 혹은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는 한국 어머니들과는 다른 어머니 노릇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현재 시점에서 분화한 연구참여자들의 어머니 노릇을 소개한다. ‘확장’, ‘고수’, 그리고 ‘전환’으로 구분되는 각 유형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분화하는지를 짚는다. 마지막으로 각 유형에 해당하는 어머니들의 실천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초창기의 어머니 노릇: “받은 대로” 가르치기

“엄마 아빠 부모 역할은 ... 계속 ... 계속 제가 받은 대로 가르쳐요. 어떻게 하나면 아들이나 딸이나 상관없는데요. 둘 다 집에서 아들이 공부만 아니고요. 집안일도 많이 도와줘요. 많이 도와줘요. 예를 들면 집 청소, 설거지, 밥까지도 하고. 빨래도 해요. 저는 좀 달라요. 지금의 ... [한국에서는 아이들은] 그냥 공부만. 엄마 과일 깎아주고 방까지 갖다 주고. 애는 안 치우고요. 그리고 나서도 안 치우고 그대로 ... 옷도 안 개고. 모두가 엄마 다 하니까. 그러니까 좀 ... 안 되겠다. (중략) 왜요? 어차피 나중에 어른이 되면 힘들고, 새로 가족이 되잖아요. 가족이면

알고 있고 서로서로 도와주는 [것이] 좋지요” (한배 어머니, 베트남 출신)

연구에 참여한 국제결혼 어머니들은 대부분 모국의 사회문화, 지역사회, 종교 및 원가족에 배태된 문화적 자원들을 바탕으로 어머니 노릇을 구성하고 있었다. 물론 연구에 참여한 모든 어머니들은 출산 이전에 어떻게 자녀를 키울지 의식적으로 고민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특징은 학력, 사회경제적 지위, 이주의 경로와는 큰 상관이 없었다. 첫 자녀가 고등학교에 입학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뷰를 통해 질문을 받기 이전에는 자신이 자녀를 양육·교육하는 방식에 대해 의식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어머니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뷰를 통해 드러난 어머니 노릇 구성은 자신들이 태어나고 자란 맥락에 깊이 배태되어 있는 것으로 보였다. 한배 어머니가 말하듯이, “받은 대로” 가르쳐왔다는 입장은 모든 연구참여자들에게 두드러졌다.

부르디외의 이론적 관점에서 연구참여자 어머니들의 이러한 성향은 실천적 감각(에토스, ethos)이라는 용어로 표현 가능하다. 실천적 감각은 일상의 행위를 결정하는 도덕의 의식적이지 않은 내면화된 형식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실천적 감각은 어떠한 행동을 하는 '실천적 상황'에서 원칙과 가치를 제공한다. 이는 1차 사회화 기관인 가정과, 2차 사회화 기관인 학교를 통해 인간에게 습관으로 누적된다(보네위츠, 1997). 국제결혼 어머니들은 원가족 경험과 학교 경험을 통해 형성된 실천적 감각을 자신들의 '어머니 노릇'에 있어 주요 참고점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1) 원가족에게 받은 실천적 감각

“제 어머님이, 친정 엄마도. 아 제가 원래. 일본 안에서도 맞벌이 가정 이 제일 비율이 높은 지역이에요. 제 친정이 있는 데가. 그것도 있었고. 그리고 제 어머니가 전문직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는 것

이 당연한 …(침묵) 그거를 보면서 자라왔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저도 그거를 원했고” (예리 어머니, 일본 출신)

“돌이켜 보면은 좀 저도 이렇게 대학교 나와서 이렇게 한국 와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 글썽요. 제가 정확하게 뭐 하고 싶다는 것을 … 그거는 직업이랑 연관해서는 그런 게 좀 이렇게 명확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거는 제 성격일 수도 있고. 어 … 음 …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중략) 그런데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어… 뭔가 이렇게 찾으려고 했던 것은 … 직업이나 그런 것보다 뭔가 가정의 행복이라든지 그런 거였어요. 그 공부는 중요하지만 뭔가 이렇게 공부에 앞서서 자존감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부족했다라는 게 (중략) 부모님도 부모님이 자라온 환경 속에서 이렇게 자존감이 낮으셨던 것 같아요” (준식 어머니, 일본 출신)

연구참여자 어머니들이 지니고 온 실천적 감각은 그들이 이주 이전에 존재했던 사회와, 그 안에 점유하고 있던 사회적 위치, 누적된 경험에 따라 다르다. 같은 국가 출신이라 할지라도 실천적 감각이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출신 국가뿐만 아니라 원가족의 사회적 위치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

국제결혼 어머니들의 자녀 양육관에 주목한 연구들은(예를 들어, 이소희 외, 2014) 출신 국가를 자녀 양육관의 차이가 나타나는 주요 배경으로 삼는다. 미디어, 공교육 등 전체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기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선행 연구들의 접근 방식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국제결혼 어머니들의 출신 국가이든, 한국 사회이든 동질하다고만 여기지 않는다. 물론 인터뷰를 활용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이주 이전의 원가족 및 교육 경험은 최소 20년 이상의 시차가 나는 회고이기 때문에 이주 이전의 사회적 위치를 지시하는 풍부한 맥락을 담

아내기는 힘들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수가 참여한 일본 출신 어머니들 사이에서는 국가뿐만 아니라 사회적 위치에 따른 실천적 감각 차이를 엿볼 수 있었다.

예리 어머니와 준식 어머니는 모두 일본 출신이다. 둘 다 동아리 활동이 풍부했던 자신들의 학교 경험을 떠올리며, 한국 학교가 지나치게 교과 수업만 하고 있다며 비판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하지만 경제활동참여 측면으로 들어가면 둘의 태도는 달랐다. 예리 어머니는 전문직이었고, 그녀가 살았던 지역은 일본 내에서도 맞벌이 가정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었다. 예리 어머니는 예리를 낳은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일을 시작했다. 당시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졌다는 한국에서의 맥락을 고려해야 하지만, 예리 어머니에게 경제활동참여는 “당연한 것”이었다. 반대로 준식 어머니는 “가정의 행복”을 중시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 준식 어머니 또한 3년 전 남편의 사업이 기울면서 가게가 어려워졌으나, 처음으로 일을 시작한 것은 작년부터였다. 그녀의 이런 실천적 감각은 통일교 신자로서 형성된 가치관도 있지만, 원가족 경험 속에서 형성된 면도 있었다.

2) ‘받은 대로 하기’ 와 한국의 ‘어머니 노릇’ 의 차이

연구참여자 어머니들은 이주 이전에 형성된 각자의 실천적 감각을 바탕으로 어머니 노릇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언급한 노동 시장 진입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분배, 학교 활동 참여 양상 사교육, 학교 교육에 대한 기대 등 다양한 영역에서 모국에서 지니고 온 실천적 감각이 작동한다.

각 연구참여자가 지닌 실천적 감각들은 한국의 어머니 노릇과 갈등 없이 융화되기도 하지만, 한국의 어머니 노릇과 거리를 두게 만드는(이은

아, 2013) 요소가 되기도 한다. 한국의 ‘어머니 노릇’ 과 연구참여자 어머니들이 이주 이전에 형성한 실천적 감각이 배치되는 개괄적인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받은 대로 하기’ 와 한국의 ‘어머니 노릇’ 의 차이

받은 대로 하기	한국의 어머니 노릇
맞벌이는 당연	자녀에게 최대한 집중
자녀는 집안일 분담해야	자녀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학원은 보충적으로	학원은 필수적으로
학교 교육으로 많은 것이 해결됨	학교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공부는 스스로	부모가 적극적으로 이끌어야

주: 1) ‘받은 대로 하기’ 의 항목은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을 코딩하여 도출 2) 한국의 어머니 노릇은 이민경(2007), 이두휴(2008), 박소진(2009), 박혜경(2009), 손승영(2009)의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전업 어머니’ 정체성이 가리키는 바를 정리.

자녀의 가사노동 참여는 한배 어머니와 대환 어머니의 사례를 들 수 있다. 두 어머니 모두 주변 한국 어머니들을 보며 부정적으로 느끼는 점 중 하나가 자녀들이 집안일을 분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배 어머니와 대환 어머니에게 교육은 중요한 가치였으나, 여기서 교육은 단순히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집안일에 참여하여 독립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둘은 의도적으로 자녀들에게 집안일을 시키고 있었다.

“엄마 아빠 부모 역할은 ... 계속 ... 계속 제가 받은 대로 가르쳐요. 어떻게 하나면 아들이나 딸이나 상관없는데요. 둘 다 집에서 아들이 공부만 아니고요. 집안일도 많이 도와줘요. 많이 도와줘요. 예를 들면 집 청소, 설거지, 밥까지도 하고. 빨래도 해요. 저는 좀 달라요. 지금의 ... [한국에서는 아이들은] 그냥 공부만. 엄마 과일 깎아주고 방까지 갖다 주고. 애는 안 치우고요. 그리고 나서도 안 치우고 그대로 ... 옷도 안 개고. 모두가 엄마 다 하니까. 그러니까 좀 ... 안 되겠다. (중략) 왜요?”

어차피 나중에 어른이 되면 힘들고, 새로 가족이 되잖아요. 가족이면 알고 있고 서로서로 도와주는 [것이] 좋지요” (한배 어머니, 베트남 출신)

일본 출신 어머니들은 학교 활동 참여에서 한국과 일본의 차이를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일본에서도 학부모-교사 모임(PTA, Parents-Teachers Association)을 바탕으로 학교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을 활발하게 논의하지만, 어머니들이 학교에서 급식, 청소 등의 노동을 대신 해주지는 않는다. 교실 안에서의 활동은 학생들끼리 서로 도와서 해결하게 되어 있다. 일본 출신 어머니들은 한국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하는 일을 자기 자녀를 잘 봐달라는 신호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다. 자신들은 학교에 가더라도 한국 어머니들처럼 활동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행사 같은 거 있으면 참여를 하고 그런 모임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것에 참여는 하지만 교실 안에서 일어나는 예를 들면 급식이라든가, 청소라든가, 아니면 선생님에게 뭐 해드리거나 그런 건 참여를 안 하거든요. 그런 건 아이가 1학년 때부터 스스로 해야 하고, 못하는 부분은 6학년 아이들이랑 같이 하거나 하면서 아이들이 그 안에서 스스로 해결하게끔 하게 되어 있어요. 틈틈이. 그런데 여기는 아이가 못하면 엄마들이 그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리 어머니, 일본 출신)

한국의 어머니 노릇은 자녀의 의존성을 당연히 한다(손승영, 2009). 자녀에게 가사 노동을 시키지 않는 이유는 “집안일을 돌보는 대신 오히려 그 시간에 열심히 공부할 것을 희망” 하고, “공부는 때가 정해져 있어서 그때 잘 하지 않으면 후회하게 되고 때를 놓친다고 생각” (손승영, 2009: 71)하기 때문이다. 한국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하는 활동이, 집안에서 자녀에게 하는 활동의 연장선이라는 관점(김정희, 2004)을 바탕으로 본다면,

이 또한 자녀 의존성의 당연시라는 입장에서 파악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 따라서 가정과 학교 양 쪽에서 한국 학부모들이 자녀에게 학교와 가정에서 노동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배후에는 공부에 시간을 더 쓸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논리가 숨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 어머니들의 실천적 감각은 이러한 한국식 논리와는 배치되는 방식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사교육 이용과 관련한 실천적 감각의 사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 동포인 미영 어머니는 사회경제적인 수준도 높고, 한국어에도 능하며, 중국에 있을 때는 3년제 산림 전문대학교를 나왔다. 학교의 학부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독서 어머니회 회장 활동을 3년 정도 할 정도로 한국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인정을 받았다. 학교뿐만 아니라 자녀를 데리고 문화센터에 다니면서 지역에 사는 다른 한국 어머니들과도 교류를 했다. 그러나 월 소득 700만원인 미영 가정이 중학교 3학년과 2학년인 두 자녀 교육에 투자하는 금액은 한 달에 80만원이다. 같은 소득 수준의 한국 가정이 평균적으로 투자하는 교육비가 117.3만원(동그라미재단 2016: 40)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차이가 난다. 자녀들이 이용하는 사교육의 내용도 다르다. 교과목을 중심으로 과외나 학원을 다니는 다른 학생들과 달리, 미영과 미영의 남동생은 자신들이 다니고 싶어 하는 댄스와 미술 학원을 다니고 있다. 수학 학원을 다니고 있기는 하지만 그 이유는 미영 어머니의 말을 따르자면 “이제는 자신이 직접 가르쳐줄 수 없어서” 였다. 한국 어머니들처럼 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을 때, 미영 어머니는 “자신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 고 답했다. 향후에 교과목에 관련된 사교육을 이용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기준도 “점수 나오는 것을 보고” 활용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제가 아이들한테 학원을 많이 안 보내는 이유도,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방학에 놀았어요. 방학하면 언니랑 배낭 하나씩 싸

서. 엄마가 버스 … 시외버스 터미널 이런데 데려다 주면 거기서부터 타고 인제 이모며 … 작은 아빠, 큰 아빠, 언니들 돌아다니면서 방학을 밖에서 놀다가 개학 전에 집에 들어가는 … 저희는 그렇게 컸거든요. 정말로 학원가는 게 아니라 … 그래서 저도 아이들은 사실 방학이면 놀아야 된다고(웃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는 다 학원 다니고 있어서. 그래서 아직까지는 학원 하나만. 수학만 아직은 다니고. 물론 중간고사 시험 성적 나오면(웃음) 보내야 할 수도 있겠지만 …” (미영 어머니, 중국(동포) 출신)

학교 교육의 역할에 대한 인식도 두드러진다. 영도 어머니는 한국 학교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안 가르쳐” 준다고 답답해했다. 영도 어머니는 본인이 영어 공부를 좋아했으며, 현재 시대에는 영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자신이 생각하기에 영어 알파벳이나 발음 방법 등은 학교에서 배워야 하는 것인데,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학원에서 이런 부분을 공부해 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다. 공부하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라는 인식은 영도 어머니뿐만 아니라 연구에 참여한 대다수의 어머니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었다.

“어린이 집도 그렇고 초등학교도 그래요. 어린이 집은 당연히 애들 어리니까, 배우는 것이 아니고 그냥 따라서 하는 것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 그런 것이 이해는 어느 정도 가요. 그런데 학교에서도 그래요. 그러면 파닉스 어디 가서 배워? 발음 어디 가서 배워? ABCD 어디 가서 배워? 학원가야 돼. 학원가야 되거든. 그럼 왜 학교 있냐고? 학교 왜 있냐고? 가장 기본[적인] 것을 안 가르쳐주는데” (영도 어머니, 중국 출신)

사교육에 대한 기대와 학교 교육의 역할에 대한 인식은 한국 맥락 하에서는 별개의 영역으로 볼 수는 없다. 한국에서는 2000년대 이후 학교 교육 체계가 사회의 교육열을 감당할 수 없게 되면서 학원 산업이 팽창

하였다(서근원, 2008). 과거에 금기시 되던 사교육은 ‘공교육 내실화’, ‘교실 붕괴’ 등의 담론 속에서 공교육이 따라가야 할 경쟁력 있는 모델로 힘을 얻었다(서덕희, 2003; 강태중·강충서, 2013). 경쟁에 있어 사교육이 핵심적인 요소로 간주되면서, 사교육 참여는 ‘기본적인 투자’로 제도화 되었고 습관에 가까운 무의식적인 학원 이용까지도 나타났다(김혜숙·한대동·남현숙, 2012). 사교육에 투자할 자본이 없는 하위 계층 어머니들은 공교육에 교육의 역할을 바라고, 사교육에 투자할 자본이 있는 상위 계층 어머니들은 공교육이 사교육을 통한 경쟁을 평가하는 역할을 바란다(이두휴, 2008). 그러나 한국 어머니와 한국 교육에 관한 선행 연구의 지적과는 달리,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계층과는 상관없이 교육은 공교육이 기본적으로 담당해야 하는 것이고, 사교육은 공교육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 여기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연구참여자 어머니들이 이주 이전에 형성한 실천적 감각은 다양한 영역에서 한국 어머니들의 어머니 노릇과는 차이가 있었다. 드러나는 형태는 하위계층 어머니들의 실천과 닮아있으나(이두휴, 2008; 박혜경, 2009; 손준중, 2009), 많은 연구참여자들은 한국 어머니들과 다른 자신의 어머니 노릇에 심리적인 압박감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많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자신이 구성한 어머니 노릇은 당연한 것이었다. 따라서 “받은 대로” 가르친다는 실천적 감각의 유지는 사회경제적 수준과는 상관없이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이 공유하고 있었다.

3) “받은 대로” 할 수 있게 만드는 조건: 성별 분업과 핵가족 구조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이 자신들의 실천적 감각을 바탕으로 어머니 노릇을 구성할 수 있는 배경은, 역설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어머니 노릇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로 자녀 양육의 주된 책임

을 어머니에게 부여하는 성별 분업 이데올로기이다(이민경, 2007; 손준중, 2009).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가족들에서 남편은 자녀 교육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있었다. 한국 중산층 이상 가정에서는 자녀 교육의 결과를 아버지가 평가하면서 어머니 노릇을 관리하는 모습도 보인다(이민경, 2007). 하지만 연구에서 중산층에 해당하는 미영 어머니와 예리 어머니도 다른 연구참여자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어머니 노릇을 구성할 수 있었다.

이러한 어머니 노릇 구성에는 핵가족 형태의 가족 구조도 맞물린다. 시어머니가 결혼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같이 동거하고 있는 대환 어머니, 시어머니가 따로 살았지만 주말에 자주 집을 방문했던 세류 어머니의 경우 초창기에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어머니 노릇을 구성하지는 못했다. 대환 어머니는 자신의 실천적 감각에 따라 자녀에게 어렸을 때부터 집안일을 시키고 싶어 했지만 시어머니가 이를 막았다. 가사 노동 분담을 시킬 수 있던 것은 최근 들어서였다. 그마저도 ‘여자가 요리를 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한국과 필리핀의 공통적인 전통적 젠더 규범을 내세우면서였다. 세류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태국어에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싶어 했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주말에 방문하여 손주에게 외국인 며느리가 태국어를 가르치는지를 감시했다. 남편 또한 시어머니에게 동조하여 태국어 교육을 막았다.

“관찰 같은 건데요, 여기 학생들은 집안일을 안 해요. 왜냐면 부모들이 그런 거 하지 말고 방에 들어가서 공부하라고 하니까요. 제가 필리핀에서 자랄 때는 심지어 초등학교 때도, 학교 가기 전에도 각자 책임이 있었어요. 이른 아침에 설거지를 하고는 했지요 … (중략) … 이걸 제 어머니 노릇에서 부족한 점이기도 해요. 단점이라 할 수도 있겠지요. 저는 자녀들에게 집안일을 하도록 교육하지 못 했어요 … (중략) 어렸을 때는 시어머니가 있으니까 심지어 설거지 같은 것도 [못 시켰어요]

… 집에 엄마도 있고, 할머니도 있는데다가 할머니도 여전히 집안일을 하실 수 있을 정도는 되세요. 딸이 설거지를 하면 할머니가 그냥 놓고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최근 들어와서야, 딸이 중학생 때 요리하는 정도는 알아야 한다고 조금씩 말하기 시작했지요” (대환 어머니, 필리핀 출신)

시어머니가 어머니 노릇 구성에 직, 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친 이 두 사례는 확대가족 형태의 가구 구성이 많은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국제결혼 어머니들의 자녀 교육·양육 경험을 살펴 본 연구(윤명숙·이해경, 2011; 이소희 외, 2014)에서 지적하는 바와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다.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한 두 선행 연구에서는 시어머니들이 국제결혼 어머니들의 자녀 출산 및 양육 과정에 개입하여 ‘한국식’으로 손주를 키우도록 영향을 끼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대환 어머니와, 세류 어머니뿐만 아니라 한배 어머니 또한 1년 정도 남편의 고향에서 지낼 때 시어머니가 베트남어 교육을 막으면서 빚어졌던 갈등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다른 연구참여자들은 시어머니의 개입이 없는 상황에서, 이주 이전에 형성한 실천적 감각을 바탕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었다.

2. 어머니 노릇의 분화: 실천적 감각의 확장, 유지 그리고 전환

이 절에서는 ‘확장’, ‘유지’, ‘전환’으로 구분되는 연구참여자 어머니들의 어머니 노릇 분화 양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연구참여자 어머니들은 이주 이전에 형성해 온 실천적 감각을 어머니 노릇 구성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그리고 이 어머니 노릇은 한국 사회에서 이상적 형태로 제시되는 ‘전업 어머니 정체성’, ‘매니저 엄마’가 지시하는 실천과는 다른 방향을 향한다. 자녀 양육의 주된 책임을 어머니에게 부여하는 한국의 성별 분업 이데올로기와, 도시 맥락에서 두드러지는 핵가족 형태는 연구참여자 어머니들이 자신들의 실천적 감각을 수월하게 적용할

수 있게 만든다. 이주 이전의 실천적 감각을 바탕으로 하는 어머니 노릇 구성은 현재도 두드러지지만, 초창기 경험과 이후의 변화를 비교해보면 각 어머니들의 어머니 노릇 구성은 서로 다른 경로를 그리며 분화했다.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참여자들의 어머니 노릇 분화 유형을 요약하자면, 아래 <표 3>과 같다. 본 연구는 어머니 노릇 분화 유형에 있어, 동원 가능한 자본의 양과 문화적 안내인의 존재 여부를 핵심적인 변수로 파악하였다. 이를 보다 더 자세히 살펴보자.

<표 3> 어머니 노릇의 분화 유형

		문화적 안내인의 존재	
		유	무
동원 가능한 자본의 양	많음	-	미영, 예리, 영도 어머니 (기존 실천적 감각의 확장)
	적음	대환, 수재, 세류 어머니 (기존 실천적 감각의 전환)	성진, 유라, 하나, 준식, 유하, 한배 어머니 (기존 실천적 감각의 유지)

주: 1) 동원 가능한 자본의 양은 각 가족의 월평균 소득 수준(경제적 자본), 어머니의 전업 주부 지위 유지 기간(자녀 교육에 관여 가능한 시간), 모어를 기반으로 한 청소년 사교육 시장 일 경험(사회적/문화적 자본), 자녀의 높은 학업 성취를 통한 상류 계층 한국인 어머니와의 만남(사회적 자본)을 종합하여 판단했다.

모국에서 습득한 실천적 감각에 기반해 구성된 어머니 노릇이 이주를 통해 접하게 된 다른 생활 세계와 언제나 조화를 이루지는 않는다. “객관적인 구조와 주관적인 기대가 어긋나 이전에 질문을 제기하지 않던 가정들이 드러날 수 있다. 이것은 일상에서의 실천을 바탕으로 국지적으로 이 불일치를 해결하고자 하는 활동들을 일으키기도 한다” (Nicolini, 2012: 68). 한국 교육 및 사회라는 객관적인 구조와, 이주 이전의 실천적 감각이라는 주관적인 기대 사이의 불일치는 어머니 노릇의 협상과 조정을 야기할 수 있다. “경험을 통해 사회 세계의 여러 측면들이 내부화 되고, 집단과 개인의 다음 행위를 결정한다(Nicolini, 2012: 55)” 는 부르디외의 관점에서 볼 때, 국제결혼 어머니들이 구체적으로 한국 교육 속에서 어떠

한 경험을 해 왔는가와 지금의 어머니 노릇을 연결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1) 실천적 감각의 재구조화: 한국 교육 경험과 문화적 안내인

어머니 노릇에 영향을 끼치는 실천적 감각의 재구조화를 야기하는 경험들은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교육을 경험하는 정도에 초점을 맞추었다. 여러 연구참여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영역은 공교육 참여, 사교육 활용, 사교육 시장에서의 일 경험이었다. 또한 교육 경험의 정도라는 측면에서는 거리가 있지만, 어머니 노릇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영역으로 문화적 안내인과의 만남도 드러났다.

<표 4>는 어머니 노릇이라는 실천적 감각을 재구조화 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험과, 이 경험이 어떠한 양상을 그리는가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을 정리한 것이다.

<표 4> 실천적 감각의 재구조화를 야기하는 경험과 영향을 미치는 배경

영역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공교육 참여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 전업 주부 신분, 경제적 자본의 양, 자녀의 학업 성취
사교육 활용	경제적 자본의 양
어머니의 사교육 시장에서의 일 경험	모국어 자본의 한국 내 가치
문화적 안내인의 존재	문화적 안내인이 제시하는 전략

자녀가 공교육 제도로 들어가면서 국제결혼 어머니들은 한국 교육이라는 사회적 장에 직접적으로 노출된다. 한국 어머니들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주목한 바와 마찬가지로(예를 들어, 이두휴, 2008) 국제결혼 어머니 또한 동원 가능한 자본의 양¹⁰⁾에 따라 초등학교 학교 활동에 참여하는 양

상과 그로 말미암은 결과가 달랐다.

전업주부였고, 경제적 자본이 풍부했으며, 한국어에도 능했던 미영 어머니는 독서 어머니회 회장을 할 정도로 초등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 일을 하고 있었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았으며, 한국어 능력이 부족했던 유라 어머니는 1년에 한, 두 번 정도 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수업 참관 기회가 있을 때 초등학교에 가서 자녀의 공부를 지켜보는 정도가 전부였다.

이러한 경험 차이는 자연스럽게 어머니 노릇에 반영되었다. 미영 어머니는 학교에서 어머니회 활동을 하면서 학교에 쌓여있는 공문서들을 살펴 보았고,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매 개해주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었다. 유라 어머니는 시간을 내 학교를 찾아가 선생님과 이야기를 해도,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여 세부적으로 파악하기가 힘들었다. 한국 교육 제도를 파악하기 힘들었던 유라 어머니는 장녀 유라가 시험을 볼 때마다 70점이 넘는지 안 넘는지를 계속해서 확인했다. 자기가 필리핀에서 학교를 다닐 때는 주요 과목 모두 70점을 넘어야 진학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자녀가 높은 학업 성취 자체가 어머니의 공교육 참여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영도 어머니의 첫째 자녀인 영도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 과학 영재로 선발되어 교육청 주관 프로그램에 참석했었다. 영도 어머니는 선발된 학생들의 부모들이 모인 모임에 갔을 때, 당시 부각되던 입학사정관제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한국어 공부 및 사회문화 파악을 위해 신문도 꾸준히 읽던 차였는데, 신문에서도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뚜렷한 이유는 몰랐지만, 중요한 자료를

10) 여기서 사회경제적 지위 대신 동원가능한 자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주 배경이라는 맥락 상 어머니들의 한국어 능력, 모국에서 형성된 실천적 감각이 얼마나 한국 교육 제도와 갈등 없이 융화하느냐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대한 “모아두어야 한다” 는 생각에 둘째 자녀가 그리는 그림 중 괜찮아 보이는 것을 스크랩하여 모아두었다. 이 포트폴리오는 둘째 자녀가 기업에서 주관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는데 신청 근거로 삼을 수 있었다.

설령 공교육 참여에 제약 조건이 많은 어머니라 하더라도 자녀의 학년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교육 경험이 누적되리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중·고등학교 시기로 접어들면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어머니들의 참여를 요구하는 영역은 줄어든다.

따라서 사교육 활용 혹은 진학·진로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한국 교육을 경험하는 정도가 달라지는 면도 크다. 자녀를 잘 키우고 싶다는 마음, 자녀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은 모든 어머니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지만, 동원 가능한 자본에 따라 구체적인 실천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실천은 한국 교육이라는 장에 대한 참여라는 점에서 향후의 어머니 노릇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자면, 예리 어머니와 준식 어머니는 모두 “부모님이 독서를 중시했다” 고 말했다. 그렇지만, 준식 어머니는 다수의 자녀를 키우고, 넉넉하지 않은 생활을 꾸려나가느라 가끔씩 직접 책을 읽어주는 정도가 끝이었다. 예리 어머니는 일본에서는 어떠한 책을 읽히는 것이 중요한지 감을 잡을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그러한 감을 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시기에 맞는 책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찾아서 이용했다. 거기서 만난 독서 선생님의 추천을 받아 자녀들에게 초등학교 때부터 논술 과외를 시켰다.

선행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흥미로운 사실은, 몇몇 어머니들은 본인이 지닌 언어 자본을 바탕으로 한국 사교육 시장에서 일을 하면서 한국 교육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김정희(2004)의 보고에 따르면 한국 어머니들 사이에서 사교육 직종은 상대적으로 유연한 근무 형태를 지니

고 있고, 교육 정보 탐색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선호도가 높다. 국제결혼 어머니들은 그 학력과 언어라는 문화적 자본이 한국에서 높게 평가되는 경우 사교육 시장으로의 진입이 용이한 편이다.¹¹⁾ 달리 말하자면, 사교육 시장에서의 일 경험 또한 어머니가 동원 가능한 자본의 결과로 볼 수 있다. 한국 어머니들이 자녀 교육을 염두에 두어 사교육 시장을 진입한다면, 연구참여자 어머니들은 한국 내 청소년 사교육 시장이 국제결혼 어머니의 모어를 필요로 하여 시장으로 진입한다는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 시장에서의 일 경험은 어머니들의 어머니 노릇에 영향을 미친다. 미예는 영어 학원, 전화 영어 일을 하면서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쳤다. 자신이 보기에는 공부를 잘 하는 학생들이 서울로 가지 못하고 지방으로 대학을 들어가는 모습은 미예가 몇 년 전까지 자녀 교육을 하면서 엄청난 압박감에 사로잡히고, 자녀들의 성적을 확인하며 다그쳤던 이유였다. 영도 어머니는 중국어 학원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 경험을 통해 일반적인 학원에서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하나씩 책 주고 풀어라” 수준으로 지도하는 것을 알았다. 때문에 한국 학교에서 영어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후, 사교육을 이용할 때 학원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준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고르고자 노력했다.

사교육 시장에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이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이냐에 따라 경험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구에 참여한 일본 출신 국제결혼 어머니들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 시장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중국어, 영어를 활용하여 청소년 대상 사교육 시장에서 일하는 어머니들과 달

11)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영어와 중국어 자원을 지닌 경우 학생 중심의 사교육 시장에서, 일본어 자원을 지닌 경우는 성인 중심의 사교육 시장에서 활동했다. 한국 사회를 이루고 있는 각각의 장에서 언어라는 문화 자본이 미세하게 다르게 평가받으며, 이에 따라 직업에 기반을 둔 어머니들의 사회적 자본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리 한국 학원에 관한 정보가 많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문화적 안내인과의 만남이다. 문화적 안내인은 특정한 사회에 존재하는 장(champs) 내에서 지위를 유지하고, 올리기 위한 게임의 규칙(rules of games)를 알려주는 의미 있는 타자(Lareau, 2015)를 말한다. 한국 교육과 연관된 경험의 양이나 질에 해당하는 앞선 요소들과는 다르게, 이 영역은 직접적인 한국 교육 경험은 아니다. 그렇지만 연구자가 보기에 본 연구에서 나타난 문화적 안내인들은 결혼 이주 어머니들에게 자녀 교육·양육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의 삶의 양식 전반을 인도하는 것에 가깝다고 느껴졌다. 세류 어머니는 “한국이 나를 바꾸었죠” 라는 말을 인터뷰 도중 거듭해서 반복했다..

그러나 거듭해서 강조하듯이, 한국 사회를 균질적이기만 하다고 바라볼 수는 없으며, 사회적 위치에 따라 각 주체 및 가족이 택하는 전략은 각기 다르다. 연구에서 문화적 안내인들이 국제결혼 어머니들에게 한국 교육이라는 장 내에서 활용하도록 제시한 전략들도 마찬가지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문화적 안내인은 이주 배경 인구가 아닌 ‘한국인’에 국한되었는데, 이는 연구에 참여한 국제결혼 어머니들이 결혼 이주 1세대라는 점을 고려하여서 해석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본인의 한국어 능력, 자녀의 학업 성취,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언어가 한국 사교육 시장에서 지니는 가치 등 어머니가 동원가능한 자원은 한국교육을 경험하는 양상을 좌우한다. 지혜 어머니의 표현을 빌리자면 국제결혼 어머니들은 한국에서 “다시 태어난” 것과 같은데, 때문에 문화적 안내인은 자녀 교육·양육뿐만 아니라 생활양식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경험들은 중·고등학교 생인 자녀들을 둔 어머니들이 현재 어머니 노릇, 즉 실천적 감각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하단의 <표 5>는 어머니 노릇의 ‘확장’, ‘유지’ 그리고 ‘전환’에

해당하는 각 사례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다

〈표 5〉 어머니 노릇의 유형: ‘확장’, ‘유지’, ‘전환’

유형	해당 사례	내용
어머니 노릇 ‘확장’	3 (예리, 영도, 미영 어머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 교육에서 추구하는 가치는 원가족 경험 혹은 학업 경험에 기반함 • 원가족의 부모보다 자녀 교육 관여 정도가 많고, 관여 시기가 김 • 관여 시기가 확장되면서 고입, 대입과 같은 문제에 부딪치는데, 한국 교육은 자신이 다루는 데 한계가 있기에 자녀에게 말기고 자신이 장점이 있는 모국에서의 대안을 탐색 • 사회경제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학구적 성향 보유
어머니 노릇 ‘유지’	6 (준식, 하나, 유하, 유라, 한배, 성진 어머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 교육에서의 가치 원가족 부모와 자녀 교육 관여 정도나, 관여 시기가 비슷 • 그러한 자기 자신을 “우리 부모도 그러셨다”며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김 • 한국 교육을 자녀에게 말기지만, 모국으로의 교육 및 진학을 대안으로 적극적으로 탐색하지는 않음 • 사회경제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음
어머니 노릇 ‘전환’	3 (수재, 대환, 세류 어머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교육 내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문화적 안내인이 존재(옆집 엄마, 직장 언니, 남편 남동생) • 문화적 안내인이 제시하는 전략을 채택함.

1) 어머니 노릇의 ‘확장’ : 한국 교육은 “애가 알아서”, 모국에서의 가능성 탐색은 “제가 하는 것 같아요”

첫째 유형은 이주 이전에 형성했던 실천적 감각을 ‘확장’ 하는 경우이다. 본 연구에서는 예리, 영도, 미영 어머니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사교육 시장에서의 일 경험, 사교육 활용, 공교육 참여 등 한국 교육과 구체적으로 접하는 영역이 넓었던 경우이다. 자신이 접한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자녀 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어머니 노릇을 해왔지만, 이주 이전에 원 가족 경험을 통해 얻은 교육적 가치가 주요한 지침이었다.

이 유형의 어머니들은 자녀의 고등학교 진학이라는 문제를 경험하면서, ‘다문화 어머니’로서 자신이 한국 교육에서 지니는 한계를 뚜렷하게 인식하고, 자녀의 진학·진로를 위해 모국에서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모습을 보인다.

확장 유형에 해당하는 어머니들은 공통적으로 자녀 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이 많고, 자녀 교육에도 관여를 많이 해왔다. 그렇지만, 자녀 교육을 우선으로 삼고 기획하는 한국의 ‘매니저 엄마’와는 차이가 있다. Park(2007)이 주장하듯이, 한국의 ‘매니저 엄마’ 담론은 어머니들이 초등학교 시절부터 적극적으로 사교육을 활용하여 자녀가 세계화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게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하고, ‘로드 매니저’ 처럼 자녀의 일상생활을 정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도 어머니는 아들 영도가 참석한 영재 프로그램에서 만나게 된 어머니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기를 쓰더라도 애를 이렇게 만들어요”

“입학사정관제는 또 어떤 때 보면 좀 공부 잘하는 애들[에게] 필요하지 일반 애들은 사실 그런 거 별로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 애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공부했으니까 제가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일반 다문화 엄마들은 그냥 애는 일반 학생이니까 굳이 그런 것에 대

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런데 일반 한국 엄마들은 아니에요. 일반 한국 엄마들은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기를 쓰더라도 애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다문화 엄마들은 ‘내 애를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아직은 크게 하는 것 같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문화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 예를 들어 한국 엄마들은 내 애가 공부 못하더라도. 막 학생 대표나 그런 거. 아니면 뭐 자원 봉사 그런 거. 아니면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든 길을 찾아서, 방법을 찾아서 하는데. 근데, 다문화 엄마들은 잘 몰라요. 설사 입학사정관제 그런 단어는 알 수도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뭐하는지는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영도 어머니, 중국 출신)

영도 어머니는 자신, 그리고 자신이 만나 본 ‘다문화’ 어머니들은 “내 애를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미영 가족의 사교육 경험에서 살펴보았듯이, 미영 어머니는 연구참여자 중 월평균 소득이 높고, 한국 어머니들과도 사회적 연결망이 풍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다른 친구들은 지금 여름 방학에 이미 2학년, 3학년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원을 2개씩 더 끊는 아이들이 많지만”, 지난 겨울 방학 때 중학교 3학년 큰 딸 미영과, 중학교 2학년 작은 아들을 새로 보낸 곳은 댄스와 미술 학원이었다.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물은 결과였다. 미영 어머니는 자녀들이 알아서 학원을 잘 다니는 모습을 보며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해야 잘하는구나” 라고 느꼈다며 웃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장 유형에 해당하는 어머니들은 자녀의 진학 문제를 통해 ‘프로젝트화’ 된 다른 한국 어머니들의 어머니 노릇과 자신의 차이가 현실로 드러나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진학한 학교에 따라 자녀들의 학교 경험이 뚜렷하게 나뉘는 한국 현실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거”에만 주목하는 확장 유형의 어머니와, “내 애를 이

렇게 만들어야” 하는 한국의 ‘매니저 엄마’는 다를 수밖에 없다. 미영 어머니는 인터뷰 말미에 중학교 3학년인 미영이가 ‘점수 따기 쉬운’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것이 대학 입학에 유리한지, 특목고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한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이미 자녀를 고등학교에 진학시킨 예리 어머니, 대학교까지 진학시킨 영도 어머니는 한국 교육 제도 내에서 ‘다문화’ 어머니인 자신들의 한계를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영도 어머니의 첫째 아들인 영도는 중학교 때 과학선생님의 주선으로 과학고등학교를 지망했었다. 방학 내내 과학고등학교를 준비했으나 결국은 떨어졌다. 과학고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영도 어머니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매우 한정적이었다. 대학교 진학도 마찬가지였다. 신문을 읽으면서 직업적인 전망이 더 좋은 과를 추천하기도 하고,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기도 했지만 “애가 다 알아서, 선생님과 의논해서” 했다고 생각한다. 물론, 중학교 이상 넘어가면서 어머니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 줄어드는 것은 한국 어머니들에게서도 나타나는 바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자녀들의 진학 경험을 통해 자신들의 한계를 인식한 확장 유형의 어머니들이 모국에서의 자녀 교육을 대안으로서 진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리 어머니는 친족이라는 모국의 사회적 연결망을 기반으로 미래의 자녀 교육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영도 어머니는 친족과 더불어 친구들이라는 사회적 연결망까지 동원하여서 구체적인 방안을 찾았다. 다음과 같은 예리 어머니의 말은 그 배경에 있는 논리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지금 아이도 어느 정도 컸으니까 다수가 가는 길은 아이들이 저보다 훨씬 더 알아요.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 다니고 있고, 여기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저보다 훨씬 더 알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에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일본으로의 진학 준비]에 대해서는 제가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리 어머니, 일본 출신)

이러한 대안 탐색은 단순히 자신이 한국보다 모국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작동한다고만은 볼 수 없다. 상상력은 한국 내에서 자녀 앞에 구체화되는 진로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대학의 수준, 전공의 직업 전망, 한국 사회의 취업난 등이 그 요소이다. 어머니들이 한국 사회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도 중요하다. 예리 어머니의 경우 한국 사회에서 자신이 이방인, 외국인이라고 느끼고 있다. 많은 일본인 결혼이주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예리 어머니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용카드 발급 등 일상적인 영역에서 나타나는 한국 사람들과의 차이를 인지하면서, 이방인이라는 감각은 더욱 뚜렷해진다. 영도 어머니의 경우 남편과의 사별 이후 남편 부계 가족들과의 친족 관계를 실질적으로 끊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는 했어도 자신은 중국 사람이라 느끼고 있다.

예리 어머니는 작년 여름에 미대를 가고 싶어 하는 딸 예리를 데리고 일본의 원가족이 있는 지역 대학에 방문했다. 교수들과 상담을 하고,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를 유학생들에게 물어보았다. 예리 어머니는 예리가 일본 본가에서 자녀가 머무르면서 일본 대학을 다녔으면 하는 마음이 컸다. 일본에서, 자신 부모님이 있는 곳에서 자녀가 공부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대학뿐만 아니라 중, 고등학교 단계부터 있었다. 당시에는 한국의 입시 중심적인 교육에 대한 회의감이 이유였다. 대학교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현재는 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한국 미대가 일본 미대보다 교수-학생 간 부조리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같은 것이다. 또한 현재 한국의 취업난을 고려할 때, 그리고 자녀가 진학할 수 있는 학교가 ‘인서울’ 학교일 가능성은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들은 한국에서 미대를 다니는 한국 사람들을 찾아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고등학교에서 여는 입시설명회를 참여하면서 내렸다.

영도 어머니는 첫째와, 둘째 아들이 한국 대학교에 진학하고 난 이후에 어린 막내를 데리고 중국 청도로 돌아갈 생각이다. 중국으로의 귀환은 본국에 홀로 남아 있는 어머니를 모시고자 하는 마음이 크지만, 한국과 중국을 가로지르는 자녀 교육 프로젝트도 연관되어 있다. 영도 어머니는 영도가 향후 진로를 찾는 과정에서 중국어가 큰 도움이 되리라 인식하고 있다. 영도 어머니가 세우고 있는 계획은 상당히 구체적인데, ‘군입대전 휴학 기간을 이용하여 1년 반 정도 중국에서 어학원을 다니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 영도 어머니는 중국에 있는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연락하여 자녀를 청도에서 ‘가장 좋은 어학원’에 등록시킬 방법을 알아보았다. 중국어뿐만 아니라 이후 중국 대학으로의 진학도 고려하여 ‘중국어만 된다면 외국인 전형을 바탕으로 좋은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도 파악한 상태이다.

“지금은 대학교 들어가기는 하지만, 제가 그래도 애한테는 “중국어 버리지 마라” [고 해요]. 지금 안 배워요. “니가 지금은 중국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다. 한국에 지금 일자리 없다. 아예 없다” 고 얘기해요. 그러면 “너는 중국에 가서 먹고 살아야 한다” 고. 그리고 “중국에서 가능하면 [군 입대 이전에] 대학교 휴학 1년 하고, 1년 6개월이나 1년하고 중국에 가서 어학 배우” 라고 그 얘기까지 해줬어요” (영도 어머니, 중국 출신)

그러나 예리 어머니와 영도 어머니의 경우 이와 같은 초국적 교육 계획의 실천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자녀들의 언어 능력이다. 보다 정확하게는 제도권에서 필요로 하는 글을 다루는 능력이다. 예리는 일본에 있는 친척들과 일본어로 이야기가 가능하고, 일본 뉴스를 알아듣고,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 등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일본어 능력을 지녔지만 ‘한자 능력이 부족하다’. 고등학교를 일본에서 다니는 것을 고려했

을 때도 고입이 존재하는 일본 맥락에서 가장 큰 문제는 한자 및 일본어 쓰기 능력이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예리 어머니는 아직까지도 한국 외에 다른 곳에서 자녀를 진학시킬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고, 일본어 과외도 따로 시키고 있다. 다만, 예리는 처음에는 어머니의 뜻에 동의했으나 지금은 자신이 일본 학교에 진학할 가능성에 대해 유보적인 시선을 갖고 있다. 영도나, 영도의 동생은 중국어 능력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한국 학생들과 큰 차이가 없다. 영도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중국어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설파하고 있다. 영도는 어머니의 말을 인정하면서도 낯선 환경과 언어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

2) 어머니 노릇의 ‘유지’ : 공부든 진학이든 자녀가 “알아서”, “우리 어머니도 그랬었다”

둘째 유형은 이주 이전의 실천적 감각을 그대로 ‘유지’ 하는 경우이다. 준식, 하나, 유하, 유라, 한배, 성진 어머니의 사례이다. 사교육 시장에서의 일 경험, 사교육 활용, 학교 활동 참여 등 모든 영역에서 한국 교육을 경험하는 바가 적었다. 이유는 사회경제적인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가족의 생계부양자이거나(유라, 하나 어머니), 자녀의 수가 많거나(준식, 유하, 하나 어머니),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거나(유라, 한배 어머니) 하는 등 다양하다. 결과적으로 자녀의 교육과 관련된 어머니 노릇은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자녀 교육과 관련하여 참여하는 영역이 가족에 제한되어 있는 편이기에, 본국에서 지니고 온 실천적 감각이 한국 교육 맥락과 가시적으로 어긋나는 경험을 덜 했다.

때문에 이 유형의 어머니들은 자녀의 중·고등학교 시기에 부각되는 진학·진로 문제를 인식하는 정도도 약했고, 자녀의 “선택”을 강조하면서 “우리 어머니도 그랬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자녀의 진로·진학과

관련하여 모국으로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

유지 유형의 어머니들이 자녀 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이 적고, 자녀 교육에 관여하는 정도도 약하지만, 이 유형의 어머니들이라 해서 자녀 교육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여길 수는 없다. 하나 어머니는 일본 출신의 아는 영어 선생님을 통해 셋째까지 과외를 시켰다. 유라 어머니는 자녀가 자신이 학교에 오는 것을 부끄러워했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학교에 가서 수업을 참관하고는 했다. 가능한 선에서 기초적인 영어를 일상생활 도중에 가르치기도 했다. 유하 어머니와 준식 어머니는 주변 다문화 센터의 도움을 빌려 자녀들의 공부를 도왔다. 성진 어머니도 성진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아들 친구 엄마의 소개로 영어 학원 1개를 꾸준히 보내고 있다.

말하자면, ‘유지’ 유형 내부에서도 정도나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자녀 교육에 관여한다. 경제적인 자본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를 차이를 낳는 중요한 요인으로 삼을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하나 어머니의 진술을 보면 앞서 언급했던 실천적 감각이 끼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좀 100만원 정도는 너무한다는 생각을 들어요. 근데 50만원 이하 정도는 … 그러니까 외국어 같은 것은, 영어 같은 것은 그래도 조금은 공부 시켜야 되잖아요. 뭐라고 해야 하나? 혼자서 할 수 있는 애면 좋지만은. 그래도 학원 같은 데나 뭔가 다니면서 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제 생각은, 저도 그렇게 다녔거든요 일본에서. 근데 우리 애들한테는. 아 물론 개인적으로 셋째까지는 그래도 좀 개인적으로 가르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부탁 해가지고. 10만원 정도나, 20만원 정도 사이에서 했지만은 넷째는 (웃음)… 지금 후근(넷째 자녀)이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3학년인데 가르쳐주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투자는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은 해요” (하나 어머니, 일본 출신)

가족 경험을 통해 얻은 실천적 감각은 일종의 하한선으로 작용한다. 하나 어머니가 유일하게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켰던 영어는 “저도 그렇게 다녔거든요” 라 기억하는 영역이었다. 사교육 활용뿐만 아니라 자녀의 진학 문제에 있어서도 일종의 ‘하한선으로서의 실천적 감각’ 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 작동한다. 필리핀 출신인 유라 어머니는 교육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가족에서 자랐다. 대학교에서는 교직을 전공했다. 2년은 장학금을 받고, 남은 2년은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학교를 다녔다. 부모님은 공부를 최선의 가치로 두고 자녀들을 양육했다. 자신은 그런 환경 속에서 ‘자신의 선택’ 으로 대학교까지 나왔다. 그런데 장녀 유라는 한국에서 특성화 고등학교를 진학하고자 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부를 이어가야 한다는 실천적 감각과, 자녀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실천적 감각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다.

“선택한 건 유라예요. 왜냐면 저는 유라를 좀 더 공부할 수 있는 학교로 보내기를 원했어요. 특성화고 가서 뭐하나요. 실력 ... 음 ... 졸업하고 나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원한다면 대학교를 가거나 혹은 직업을 찾는 것이지요. 그러니, 저는 일반계 고등학교를 보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건 제 스타일일 뿐이고, 유라는 공부가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제 선택이 아니라 유라 선택이지요. 내가 결정했다면 유라는 슬퍼했을 것이고, 이것이 엄마 선택이라며 저를 탓했겠지요. 등록 전에 저는 유라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를 원하는지 물어봤어요. 그런데 유라는 처음에 네일 아트를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네일 아트. 그런 고등학교? 미술은 아니고 그냥 네일 아트. 네일 아트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우선은 공부를 해야 한다. 네일 아트는 공부와는 거리가 멀고, 그냥 졸업한 후에 취업을 보는 거라고 말했지요. 제가 여러 번 반복했던 말은 먼저 공부를 하고, 네일 아트는 원한다면 그 이후에 하라는 것이었어요. 우선은 공부부터” (유라 어머니, 필리핀 출신)

유라의 고등학교 진학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들은 국제결혼 어머니들이 지니는 실천적 감각들을 단순하게 한국의 ‘어머니 노릇’이 지향하는 방향과 반대되는 것만으로 파악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유라 어머니는 유라가 특성화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것까지는 너의 “선택”이라는 판단 기준 하에 수용했지만, 유라가 네일 아트를 전공하겠다는 것은 수용하지 않았다. 유라 어머니의 기준에서는 네일 아트는 ‘공부’가 아니었다. 어머니로서 생각하기에 그것은 최후의 선택지였다. 결정을 내리기 전 한 달에 가까운 시간 동안 자신은 “네일 아트는 안 돼. 그냥 다른 거. 그냥 나중에 네일 아트는 그냥 나중에 배워야 돼”라고 말을 했다. 전공에 있어서만큼은 자신의 의견을 강요했다. 그래서 미안함을 가지고 있다. 현재 유라는 상업을 전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 유형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교육이나 진학 결정에 관해 물어볼 때 물어볼 때 “[자녀가] 알아서 한다.”, “개가 선택한 거예요”라는 반응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자율성을 중시하고, 학교 공교육에 많은 것을 의지하는 모습은 다른 저소득층 한국 어머니들과 일치하지만(이두휴, 2007), 국제결혼 어머니들은 ‘전업 어머니 정체성’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는 약한 것으로 보인다. 자신이 한국 교육을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은 스트레스의 원천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자신보다 자녀들이 더 잘 알며, 자녀들이 알아서 한다’라며 마음 편히 넘길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했다. “알아서 하는” 자녀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 이유는, 그 모습이 스스로가 지니고 있는 실천적 감각과 부합하기 때문인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참여자 대부분은 원 가족 경험을 회상하며 자신의 부모님이 공부를 강요하지 않고, 자율성을 강조했으며, 자신도 스스로 공부했다고 진술했다.

유지 유형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어머니들도 모국에서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모국에서 자녀들의 진로를 찾고자 하는 희망은 있었지만, 구체적으

로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다. 모국으로 갔을 시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을 장점과 단점을 뚜렷하게 염두에 두고 고려한다기보다는, 부모님이 손녀와 함께 지내기를 원하신다거나, 문화를 경험해보면 좋다거나 하는 정도였다. 연구자가 보기에는 인터뷰 이전에 뚜렷하게 생각이 정리되어 있지는 않은 듯했다. 또한 교육만을 위하여 자녀를 따로 모국으로 보낸다는 인식보다는, 가족 모두가 이동한다는 인식이 강하였다. 모국으로의 귀환에 회의적인 까닭에 관해 유하 어머니는 남편이 일본어를 못하고, 사업 기반이 한국에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유라 어머니는 “자녀를 더 공부시키기 위해”,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 필리핀으로의 귀환을 적극적으로 알아보았으나 자신이 한국에 남아서 돈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딸들과 떨어져야 한다는 점이 괴로워서 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자녀들이 일본어나, 영어 말하기 능력이 부족하다는 언급은 종종 있었으나, 글쓰기 능력에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3) 어머니 노릇의 ‘전환’: “직장 언니”, “옆집 엄마”, 그리고 “남편의 남동생”

셋째 유형인 ‘전환’ 유형은 이주 이전에 형성한 실천적 감각보다는 한국에서 새롭게 익힌 ‘어머니 노릇’을 실천하고자 노력한다는 점에서 앞선 두 유형과는 이질적이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수재, 대환, 세류 어머니는 ‘직장 언니’, ‘남편의 남동생’, ‘옆집 엄마’ 등 한국 사람들로부터 전수 받은 내용에 기반하여 어머니 노릇을 구성하고 있는 듯하다. ‘직장 언니’, ‘옆집 엄마’로부터 영향을 받은 수재 어머니와 세류 어머니는 자녀에게 공부를 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말을 하는 등, 한국 어머니들의 어머니 노릇과 매우 닮아 있는 것처럼 보였다.

수재 어머니의 사례는 그 양상을 여실히 보여준다. 수재 어머니 가족의

월평균 수입은 350만원인데, 중 2학년과 초 6학년 자녀들에게 수학, 영어 과외 등 월 70만원을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월평균 수입 대비 사교육 지출은 비슷한 소득 수준의 한국 가정과 유사하다(동그라미재단 2016: 40). 확장 유형에 해당하는 월평균소득 700만원의 미영 어머니 가정과 비교할 때 월수입은 반이지만, 사교육 투자 규모는 비슷한 정도이다. 수재 어머니에게 이유를 물었을 때 그녀는 ‘언니들’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회사의 한국인] 언니들이 말을 많이 해요. 회사 시간 많이 같이 보내니까. 거의 회사 시간 동료가 있으니까. 이야기를 집보다는 밖에 더 많이 해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애들 어렸을 때 돈 많이 벌어서” “모아라” 그리고 애들이 크면 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다 이렇게 사는 방식을 다 가르쳐 주죠. 그리고 한국 오면 힘들다. 왜냐면은 … 뭐라 해야 하나. “한국은 힘들다” 그리고 “열심히 안 살면은 그것도 힘들다”. 그리고 애들한테 애들한테. 뭐 엄마는 똑같아. 다 전화로 “일어나라” “학원가라”.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많이 해요. 전화기 들면 다 옆에 같이 있으니까. 다 똑같아. 저도 살다보니까 나도 한국 엄마랑 옆에 계속 배우고(웃음) 하고 있고. 가끔하다가 “아 나는 그냥 한국 방식으로 안 따라가고 [싫어] 애들 힘드니까”.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 한국 방식으로 안 가르쳐주면은 애들이 그렇게 따라가기 힘들어 한국 애들이랑. … 내가 한국 방식으로 안 가르쳐주면은 우리 애들이 한국 애들이랑 가기 힘들다. 그렇게. 내가 안 가르쳐. [같이 살고 있는] 우리 엄마랑 저랑 [우즈베키스탄에서 했던 것처럼] 가르치고 싶었는데, [우리 엄마가 나한테 했던 것처럼] 키우고 싶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애들이 힘들더라고” (수재 어머니, 우즈베키스탄 출신)

직장 동료인 한국인 언니들은 수재 어머니에게 사는 방식을 다 가르쳐주는 사람들이다. 여기서의 ‘사는 방식’은 단순히 자녀 교육에 투자하

는 정도만 가리키지 않는다. 전화로 자녀에게 “일어나라, 학원가라” 하는 일상생활에서의 관리, “중학교는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보내야 한다”는 진학 기준, 과외 선생님을 소개 받는 경로 모두 ‘언니들’이 알려준 ‘사는 방식’이다. 여기서 ‘언니들’은 라루(Lareau, 2015)가 주목했던 문화적 안내인(Cultural Guide)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문화적 안내인은 특정한 사회에 존재하는 장(champs) 내에서 지위를 유지하고, 올리기 위한 게임의 규칙(rules of games)을 알려주는 의미 있는 타자이다.

본 논문에서 문화적 안내인 개념을 채택한 이유는 이 개념은 사회적 자본의 종류나 크기와는 구분되는 논리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선행연구들은(예를 들어, 이유정·김병수, 2012) 사회관계망의 크기와 종류를 바탕으로 국제결혼 어머니들의 어머니 노릇을 구분하고자 했다. 하지만 문화적 안내인이 드러나지 않는 하나 어머니나 유하 어머니의 사례를 살펴보면 사회관계망의 크기나 종류와는 다른 논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하나 어머니는 일 때문에 만나는 한국 사람들에게 부모 노릇을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지만, 실제로 자신이 따라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모어를 기반으로 삼아 성인 교육 시장에서 일하는 하나 어머니는, 대기업에 다니는 회사원들에게 일본어를 가르친다. 종종 자녀 교육에 관해 물어봐서 “한 사람당 100만원씩이나 들여서 공부 시킨다거나” 하는 답변을 듣지만, “우리하고는 먼 그런 데 살고 있는 사람”이라 느낄 뿐, 따라하지는 않는다.

“(중략) 제가 상대하는 그 ... 회원들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분들은 일단 일본하고 관계가 있는 회사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좀 대기업 분들. 삼성이나, 엘지나, 현대나, 포스코나 그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니깐. 그럼 그런 사람들은(웃음) 저하고는 좀 먼 관계에 있는 분들이라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생활하나 그런 것도 좀 물어보면 자녀 교육이나 이

런 것도 물어보면요. ‘와 한 사람에 100만원씩이나 들어가고 공부 시킨다거나, 그런 거 들으면 대단하구나(웃음)’ 우리하고는 먼 그런데다가 살고 있는 사람인 것 같고. 그래도 현실에는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사람도 있구나 그런 것도 음 … 알 수 있어서, 차이를 느끼면서도 이게 현실이구나(웃음) 물론 그 상대니 그러니까 뭐죠? 전화 일본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좀 대기업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그런 거지만은 일반 사람들도 그런 건가? 잘 모르겠어요” (하나 어머니, 일본 출신)

하나 어머니의 태도는 그녀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떨어트려서 생각할 수 없다. 부르디외는 “사회적 위치들의 공간은 성향들의 공간을 매개로 하여 입장들의 공간으로 재표현 된다(부르디외, 1994: 22).” 고 주장한다. 사회적 연결망을 통해 문화적 인도를 받을지라도 그것이 실천적 감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수용 가능한 범위에 있어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 부르디외의 입장을 바탕으로 보자면 수용가능한 범위는 ‘게임의 규칙’ 을 실시하기 위해 동원해야 하는 자본의 정도에 따라 구획되기도 하며, 과거의 경험을 통해 정신에 기입되어 있는 실천적 감각에 의해 구획되기도 할 것이다.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비슷한 사회경제적 수준에 있는 한국 사람들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들의 ‘게임의 규칙’ 을 받아들인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이다. 유하 어머니의 사례는 이 점을 잘 보여준다.

유하 어머니는 시장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다. 시장에 있는 비슷한 나이와, 비슷한 사회경제적 수준에 있는 한국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 어머니들이 없는 돈으로라도 자녀를 공부시키는 모습과, 이에 대해 너무 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느끼는 모습을 보았다. 그러나 그녀 자신은 “우리 어머니도 안 그랬고”, “자기도 그건 아니라고” 느끼기에 자녀 교육에 한국 사람들처럼 투자를 많이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어쩔 수 없다고. 한국 사회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연구자: 그런데 그 분은 어쩔 수 없다고 하시는데 어머님은?) 저는 아니라고. 우리 엄마도 그렇게 못 키웠어요 저를. 자기도 생활이 있고 너희들 생활도 있지만 우리도 여유가 있어야 한다고. 다 있는 돈 없는 돈 너희한테 주면 우리는 뭘 먹고 사냐고 (중략)” (유하 어머니, 일본 출신)

사회적 연결망이라는 용어 자체에는 관계를 맺는 사람이 어떠한 타자인가는 고려하지 않지만, 본 연구에서는 단순한 사회적 연결망이 아니라 의미 있는 타자, 그리고 활용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주는 타자만이 어머니 노릇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¹²⁾

세류 어머니에게 ‘옆집 엄마’가 지닌 의미는 이 점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세류 어머니는 주변 친구들에 비해 늦은 나이에 한국으로 와 결혼을 했다. 결혼 전에는 상냥하게 대해주던 시어머니는, 손주를 보자마자 “태국어는 가르치면 안 된다”며 자신을 감시하고 억압했다.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에게 동조했다. 또한 남편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충격에 빠져 일을 하지 않는 데다가, 아들 세류 앞에서 자신을 무시하기가 일쑤이다. 심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힘든 상황에서 세류 어머니가 마음의 위안을 찾는 곳은 ‘옆집 엄마’를 중심으로 하는 동네 한국 어머니들과의 모임이다. 옆집 엄마는 “소풍 때는 오래 걸으니 김밥이 상하지 않도록 식초를 넣어야 한다.”는 등 한국에서 자녀를 키우는 데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었다. 게다가 ‘옆집 엄마’는 세류보다 나이가 많은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그 자녀는 학원을 가지 않고도 문제집을 풀면서 학교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있다. 동네 보습 학원을 찾아갔다가도 한 달에 8

12) 라루(2015)는 문화적 안내인과의 만남을 통해 하위 계층의 학생들이 상류 계층의 게임의 규칙들을 습득하여 상향 이동(upward mobility)을 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었지만, 본 연구에서 연구참여자 어머니들에게 나타난 문화적 안내인들과, 그들이 제시한 게임의 규칙은 연구참여자 어머니들이 한국 사회에서 놓여있는 사회적 위치와는 큰 차이가 없었다. 추가적인 사례 표집을 통해 연구를 확장해야 할 부분이다.

만원 한다는 답변에 돈이 걱정되어서 신청하지 못했던 세류 어머니에게, 옆집 엄마는 한국에서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 필요한 방법과 목표를 보여주는 사람이다.

“(중략) OO 엄마[가] 나한테 ‘기탄 수학’ 사라[고 알려줘요] (웃음).

“언니, 세류도 처음에는 언니 생각[대로 하는데]. 이거 5천원짜리 사서 [풀어 보았더니] 돈 아깝다 그러면. 2번, 3번 이렇게 [풀게] 하고. 두 번째는 바로 기탄수학[으로 넘어가요]. 첫 번째[로 풀게] 하고 나서. 나중에 3개월 지나서는 한 페이지 몇 분 동안 풀게 하는 식으로 해 봐” 이렇게 그 OO 엄마 나한테 … (중략) 진짜 나 … 잊어버릴 수가 없어. 좋은 사람” (세류 어머니, 태국 출신)

대환 어머니의 사례는 문화적 안내인이 꼭 한국의 지배적인 어머니 노릇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필리핀 사회는 고등교육 진학에 많은 가치를 두고 있으며, 본인도 회계 전공으로 대학교를 졸업하였기에 대환 어머니는 자신의 자녀가 대학교까지 진학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그녀의 아들은 일반계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3학년 때 특성화 고등학교로 학교를 옮겨 스마트 미디어를 전공하고 있다. 대학교 진학에 들어가는 비용을 집안에서 감당할 수 없으리라는 판단에서였다. 군대를 갔다 온 이후 돈을 벌어서 사이버 대학에 진학할 계획을 하고 있다. 대환 어머니는 아들이 대학교 진학을 포기했고 그 이유가 돈 때문이라는 생각에 괴로웠다. 일련의 과정에 남편의 남동생은 깊이 개입했으며, “어차피 한국에서 대학 나와도 요새 다 실업자” 라며 대환 어머니를 설득했다. 기계 공학 쪽을 목표로 했던 아들이 스마트미디어를 전공으로 택한 것도 삼촌의 추천이었다. 그러면서 남편의 남동생은 미어가 영어를 아들과 딸에게 적극적으로 가르치도록 종용했다. 무역에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돌아다녀 보니, 언어와 기술이 가장 중요하더라는 것이

그 근거였다. 현재는 미에도 지금의 방향이 맞겠거니 하는 생각을 하고, “욕심을 버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3. 소결

이 장에서 살펴본 결과, 국제결혼 어머니들 실천적 감각은 한국 교육을 접한 경험과 문화적 안내인의 유무에 따라 분화한다. 세 유형이 관찰되었는데, ‘확장’에 해당하는 경우 국제결혼 어머니들은 동원 가능한 자본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한국 교육이라는 새로운 맥락에 다양하게 접하며, 이주 이전에 형성된 실천적 감각이 한국 맥락까지 포괄하여 확장되어 가는 와중에 어머니 노릇을 구성한다. ‘유지’에 해당하는 경우 동원 가능한 자본이 상대적으로 적기에 한국 교육 경험은 적으며, 이주 이전에 형성한 실천적 감각을 유지하여 어머니 노릇을 구성한다. ‘전환’에 해당하는 어머니들은 한국 사람인 문화적 안내인이 제시하는 어머니 노릇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현재의 어머니 노릇을 구성한다.

한국 맥락 하에서, 각각의 국제결혼 어머니들이 구성해 온 어머니 노릇은 자녀의 학교 경험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주 이전의 실천적 감각을 주로 적용했던 초창기부터, 지금의 형태로 분화하는 과정 속에서 각 자녀들의 학교 경험이 지니는 특징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다.

V. 국제결혼 가족 청소년의 경험 : ‘다른’ 어머니 노릇과 체계적 배제

이 장에서는 국제결혼가족 중·고등학교 청소년의 학교 경험을 살펴본다. 먼저 선행 연구에서 주목했던 낙인감 혹은 차별 경험 문제가 중·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거의 부각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친다. 이후 앞 장에서 밝힌 국제결혼 어머니들의 어머니 노릇이 청소년 자녀들의 교육 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리한다. 한국 어머니들이 공유하는 ‘전업 어머니’ 혹은 ‘매니저 엄마’와는 다른, 국제결혼 어머니들의 어머니 노릇을 자녀들이 겪는 교육적 어려움과 연결하여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교육적 어려움은 신자유주의적 한국 교육이 지닌 계층화 기제들에 의하여 생겨난다고 분석한다.

1. 다문화 배경과 친구 관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요”, “예상 외로 좋았던 것 같아요”

선행연구들은 국제결혼가정의 청소년들이 학업 성취가 평균적으로도 낮고, 같은 저소득층보다도 낮다는 보고를 내놓은 바 있다(김광혁, 201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그러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다. ‘다문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낙인감을 느끼고, 다른 학생들로부터 차별을 경험한다는 질적 연구(전은희, 2012; 김수미·정경은, 2013; 김기현·이재희·홍혜미, 2013; 박미숙·이미정, 2014)를 바탕으로 볼 때 학교 적응이나 친구 관계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이 낮은 학업 성취로 이어지리라는 유추를 해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 자녀 중 다수는 현재 ‘다문화’라는 배경 때문에 차별을 경험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차별 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국한되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연구참여자들은 친구 관계든, 선생님과 관계든 차별을 경험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유라는 면접에 참여한 청소년 중 유일하게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경험했던 사례이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고, 검은 피부와 곱슬머리가 이유였다. 그러나 중학교 이후로는 반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유하 어머니는 유하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다문화’라는 이유로 따돌림을 경험했으나, 중학교에 들어온 이후로는 친구 관계가 좋았다고 얘기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차별 경험이 예상보다 적다는 결과는 초·중학생을 중심으로 조사했던 선행연구와는 다르다. 정부 공식 조사는 본 연구의 발견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2015년 실시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도 2015년 서베이 조사에서도 ‘다문화 가족 자녀라는 것을 주위 사람이 아는 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물었을 때 부정적인 대답보다 긍정적인 대답이 더 많았다(국가통계포털, 2016).¹³⁾

“애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생각으로 하던 말을 밖으로 막 내뱉어요. 근데 고학년 되니까 할 말 안 할 말을 구분을 하게 되었어요. 아, 제 생각이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냥 말로는 내뱉지 않는 그런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유라, 특성화(상업) 고등학교 2학년)

“연구자: 그러면 친한 친구 분들은 한배 학생이 어머니가 베트남에서 오셨고, (한배 학생이 가끔씩) 베트남어로 말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신 건가요?”

13) 매우 싫다 2.4%, 싫다 7.9%, 보통이다 53%, 좋다 22.1%, 매우 좋다 14.5%

한배: 알고 있지요

연구자: 친구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한배: (웃음) 반응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요.” (한배, 일반계 고등학교 2학년)

“연구자: 친구들은 어떻게 반응해주셨나요 그 때?

하나: 그냥 부럽다는 애들도 있었고. 신기하다 ...

연구자: 친구들의 그런 반응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하나: 아 이게 부러운 점이 되는구나 싶었고, 저는 예상 외로 네 좋았던 것 같아요” (하나, 일반계 고등학교 2학년)

물론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고프먼(1963)이 제시하듯이 ‘정상인의 관점’을 이미 내면화 한 상황이었다. 주변 학생들이 ‘다문화’ 배경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으며, 일부 학생들은 부러워하기도 한다는 점을 확인하면서도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먼저 다문화 배경을 꺼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차별 경험이 있는 학생이든, 차별 경험이 없는 학생이든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연구에 참여한 모든 고등학생들은 친구 관계가 좋았다. 다문화 배경이라는 사회적 정보(social information)가 얼마나 가시성을 지니는가 (고프먼, 1963: 80) 여부와는 관계가 없었다. 베트남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왔기에 친구들과의 대화 중간에 베트남어를 섞어 썼다는 한배도, 검은 피부와 곱슬머리 때문에 상대적으로 외모 차이가 두드러지는 유라도 중학교 이후로는 다문화 배경 때문에 친구와의 관계에서 낙인감을 경험하지는 않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차별이나 낙인감을 학업 경험의 어려움으로 주장하기는 힘들었다. 국제결혼가족의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 합당하다고 볼 수 있다.

2. ‘어머니 노릇’의 구성 및 분화와 자녀들의 교육 경험

본 연구에서는 국제결혼가족의 중·고등학생 청소년 자녀들이 겪는 어려움,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에 대한 비판(손준중, 2010; 김천기 2012)과 연결 지어 하위 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배제 장치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라 주장하고자 한다.

공교육 붕괴 담론이 가리키듯이, 한국 사회는 사교육을 자녀 교육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강태중·강충서, 2013).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교과목이나 예체능 등의 특기를 가르치는 조기교육은 사교육에 기반을 둔 계급 간 경쟁의 대표적인 사례이다(조혜선, 2004). 고교 다양화 정책 도입 이후 고등학교 진학 단계에서 상대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사교육이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김성식·류방란, 2008, 김성식·송혜정, 2009), 경쟁이 심화되면서 가족의 교육 프로젝트에 자녀가 참여하는 시기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그러나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국제결혼 어머니들이 이주 이전에 형성하였고, 현재까지도 지니고 있는 실천적 감각은 다르다. 대개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크고, 사교육은 소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국제결혼 어머니들은 공교육과 사교육을 분리하여 접근하는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국제결혼 가족들은 한국 가족들보다 사교육을 적게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득 구간에 따른 한국 가족들의 월평균 자녀 교육비와(동그라미재단, 2016: 40) 동 소득 구간에 있는 연구참여자 가족들의 자녀 교육비를 비교한 <표 6>을 참고하면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이 자녀 교육에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 자녀들 또한 자신이 다른 친구들보다 사교육을 적게 이용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6〉 소득 구간에 따른 한국 사교육비 평균과
연구참여자 가족의 현재 사교육비 비교

소득 구간	한국 사교육비 (월평균)	연구참여자 가족의 사교육비(만원, 월평균)
-100만	77.5만	대환 가족(18만), 하나 가족(없음), 유라 가족(없음) 세류 가족(없음)
100-200만	66만	영도 가족(60만)
200-300만	69.6만	준식 가족(20만), 성진 가족(18만), 유하 가족(15만), 한배 가족(0만)
300-400만	74.3만	수재 가족(70만)
500-600만	114.7만	예리 가족(75만)
600-700만	109.5만	미영 가족(80만)

- 1) 한국의 소득 구간 별 사교육비 평균 자료는 동그라미재단(2016: 40)에 근거
- 2) 401-500 사이의 소득 구간은 해당하는 연구참여자가 없기에 생략함

앞 장에서 살펴봤던 어머니 역할의 각각의 유형에 따라 사교육비 투자에서 차이를 나타낸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확장’ 유형에 해당하는 미영, 예리, 영도 가족의 경우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지만, 해당 소득 규모 인구의 평균 사교육비 투자보다는 적다. ‘유지’ 유형에 해당하는 하나, 유라, 준식, 성진, 유하, 한배 가족은 해당하는 소득 규모의 평균 사교육비보다 훨씬 적게 투자하고 있다. ‘전환’ 유형에 해당하는 대환, 세류, 수재 가족의 경우, 문화적 안내인이 ‘한국 어머니’였던 세류¹⁴⁾와 수재 가족은 해당하는 소득 규모의 월평균 사교육비와 비슷한 정도로 투자를 하고 있다.

사교육비가 눈에 드러나는 대표적인 지표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영도 어머니가 진술했듯이 “내 애를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한국 어머

14) 세류 가족의 경우 아버지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 생활은 시부모로부터 물려 받은 재산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세류 어머니는 물려받은 재산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며, 필요한 사항을 말할 때마다 남편이 주는 돈으로 생활을 꾸려 나가고 있었다. 남편은 자녀를 공부시키려고 하는 세류 어머니에게 부정적으로 반응한다. “애들은 놀아야지” 라는 말을 자주 하며, 밤에 문제집을 풀고 있는 세류에게 “들어가서 자” 라면서 불을 꺼버리기도 한다. 세류 어머니가 월소득 및 사교육비 투자를 0원이라 답하기는 했지만, 상기한 맥락을 바탕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니들의 명확한 목표의식과 “자녀가 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국제결혼 어머니들의 차이이다.

또한 “자녀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싶어도, 한국 공교육 제도에서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교육이라는 장 내의 게임의 규칙을 온전히 체화할 수 없는 국제결혼 어머니들의 한계도 고려해야 한다.

<표 7> 어머니 노릇의 분화와 청소년 자녀의 경험

유형	해당 청소년 사례	내용
어머니 노릇 ‘확장’	2 (영도, 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머니와의 관계 좋음 • 한국 내에서의 교육 성취도 상대적으로 높음 • 다만, 절대적으로 상위권은 아니며, 진학 및 학업을 둘러싼 어려움을 경험함
어머니 노릇 ‘유지’	3 (한배, 유라, 하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머니와의 관계는 좋으나 ‘어머니 노릇’에 대한 갈등 요인이 있음. 한국 어머니들과의 비교가 그 원인. • 한국 내에서의 교육 성취가 상대적으로 낮음 • 특성화고(구 실업계) 혹은 전문대학을 진학한 경우가 많음(유라, 자민의 장남, 케이코의 장녀, 미야코의 장/차녀 등)
어머니 노릇 ‘전환’	2 (수재, 세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부’를 강조하는 어머니와 감정적인 마찰을 겪고 있음 • ‘공부’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

이러한 상황에서 자녀들은 사회경제적인 지위와는 상관없이 진로·진학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입장에 놓인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상위권 학생에게 자원을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며, 다변화 된 진학 경쟁에서 학교가 개별 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은 한정되어 있다.

<표 7>에서 요약적으로 제시하듯이, 어머니 노릇의 확장, 유지 사례 모두 학업 및 진학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전환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머니가 한국의 문화적 안내인으로부터 인도를 받는다는 점에서 다른 양상을 드러낼 수 있어 주목할 가치가 있으나,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 자녀들의 경험에서는 진로·진학에 관련한 주제가 두드러지지 않는 않았다. 대신에 한국 어머니들과 닮은 어머니 노릇 때문에 학업을 둘러싼 갈등이 발견되었다.

이하에서는 확장, 유지 그리고 전환 유형에 해당하는 어머니를 둔 각 자녀들의 학업 경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기술한다.

1) ‘확장’ 유형 어머니의 청소년 자녀: 특목고 진학 과정에서 느낀 “내가 많이 늦었구나”

본 연구에 참여한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경우도 학업 혹은 진학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경우 자녀의 학업 성적은 한국 학생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선행연구(김광혁, 201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와는 다른 지점이다.

어머니가 실천적 감각의 ‘확장’으로 분류되는 영도와 예리는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어머니가 자녀 교육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의 소극적 혹은 뒤늦은 활용 같은 실천적 감각의 차이 때문에 한국 교육 제도 내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영도는 “엄마도 저를 어떻게 키울지 모르셨다”고 말했다. 중학교를 올라가면서 어머니에게 “엄마 왜 나는 학원 안 다녀?”라 물었다. 자신도 별로 다니고 싶은 마음이 뚜렷한 것은 아니었지만 주변 친구들은 학원을 가는데 자신은 가지 않는 사실이 의아해서였다. 초등학교 때도 학원

을 다니기는 했으나, 교과목에 관련된 학원은 아니었다. 중학교 넘어가면서는 사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일부 활용했으나, 초등학교 때는 “학원이나 과외 같은 것은 몰랐다.”

“한국이 교육 환경이 그런 건 줄을 몰랐던 거죠. 저도 학원 안 가다 보니까 그냥 집에서 학교 끝나고 돌아오면 집에서 놀게 [되고는 했어요]. 동생하고 놀거나, 뭐 책 읽는 게 다였고. 게임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상태가 돼서. 중학교까지 가서도 학원은 안 다녔고 ... 그래도 학원을 다녀보기는 했어요 결국에는. 엄마도 학원의 필요성을 느꼈고, 저도 애들 다 가면은 나만 안 가니까. 일단은 뭐 남들 다 따라가는 게 인간 본능이니까. 한국은 더 그렇잖아요? 남들이 하면 하나까. 그래서 일단 저도 다녀보기는 했는데. 다녀 봤는데도 더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고요” (영도, 대학교 1학년(물리학과))

인용문에서 잘 드러나는 소극적인 사교육 경험은 영도의 학업 경험에 다양하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자면, 영도는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주최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해 물리학 수업을 들었는데, 교수는 미분과 적분을 이용해서 설명을 해서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학교에서는 당시 미분과 적분을 가르치지 않았었다. 그런데 주변을 보니 학원 다니는 애들은 모두 선행학습을 해서 수업을 알아듣고 있었다.

사교육의 소극적 이용은 단편적으로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영도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과학 영재로 선발되어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영민한 학생이었다. 그런데 중학교 때까지는 최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했으나, 고등학교 이후에는 성적이 내려가기 시작했다. 영도는 이에 대해 자신의 실력은 항상 일정했고, 학교 교육이 자신을 추월한 것이라 여기고 있었다. 영도는 그 이유를 자신이 “공부하는 습관”이 들여지지 않았으며, 그 원인으로 남들처럼 어렸을 때부터 학원을 다니지 않

은 것을 꼽고 있었다.

영도의 경험은 전은희(2015)가 외고에 사회적 배려자 전형으로 입학했다가 경제적 곤란 때문에 사교육의 도움을 받지 못해 중도탈락한 국제결혼가정 학생의 경험을 통해 지적하는 바와도 연결할 수 있다. 영도 또한 중학교 졸업 전후로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하락하는 경험을 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소득 수준 뿐만 아니라 사교육 이용을 부수적인 것으로 여겼던 어머니의 실천적 감각까지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학업뿐만 아니라 진학에서도 어려움이 나타난다. 연구 참여자 청소년 중 예리는 미대 진학을 위해 특목고인 예고를 진학하고자 했다. 예리는 중학교 2학년 말에서 3학년 초, 부모님을 설득하여 미술 학원에 등록했다. 하지만 미술 학원에서의 경험은 예리에게 “내가 많이 늦었구나” 라는 느낌만 주었다. 이후 예고를 포기하고, 선생님에게 일반계 중에서 미술중점고등학교가 있다는 정보를 들어 미술중점고로 진학을 준비했다. 면접이나, 자기소개서 등의 작성은 친구들이 많이 도와줬다. 비록 어머니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했으나, 실질적인 준비는 자신이 주로 했다고 느끼고 있다.

“제가 원래 예고 진학을, 예고를 진학하고 싶어서 중학교 3학년 초반? 2학년 말쯤에 미술 학원을 잠깐 다녔었어요. 근데, 저를 입시 미술생으로 안 쳐주더라고요. 거기 학원이 좀 나쁜 걸 수도 있는데, 그게 좀 따로 있어요. 여기가 입시 미술 애들이 하는 데고, 저는 다른 방에서 했어요. 그래서 그 때 ‘내가 많이 늦었구나’ 라는 것을 느꼈죠. 그래서 그 학원을 끊고, 예고 진학을 포기를 하고 수학 학원을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후회가 돼요. 그냥 ‘그 때 그거라도 그냥 더 비싸게 돈 주고 다른 학원 옮겨서 열심히 할 걸’ 이라고 생각이 돼요. 1년이면은 충분히 준비할 수 있어요” (예리, 일반계(미술중점) 고등학교 2학년)

예리가 겪은 위와 같은 경험은 어머니의 실천적 감각이라는 부분과 연관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손준중(2010)이 지적하듯이, 고교다양화 정책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다양한 학교들은 특목고 혹은 자립형 사립고부터 하위 특성화 혹은 일반계 고등학교까지 수평적 계층화를 이루게 된다. 상위 계층에 있는 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자본이 투입되어야 하고, “내 애를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어머니들의 교육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예리 가족은 사회경제적인 수준이 높으며, 심지어 어머니 예리 어머니는 예리가 미술 쪽 계통으로 진로를 준비하리라는 점을 예리의 중학생 시기 초창기부터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리 어머니는 한국에서의 진학은 예리가 더 잘 안다고 여겼고, 결과적으로 예리 어머니는 고등학교 진학 계획을 수정해야 했다.

그러나 영도와 예리의 교육적 성취는 연구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드러난 청소년 자녀 중 높은 편이었고, 진학 경험 또한 ‘더 높은 곳으로의 지망이 좌절된’ 경우라 볼 수 있다. 영도와 예리의 어머니는 모두 실천적 감각의 ‘확장’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자녀 교육에 관여하는 어머니 노릇을 하고 있었다.

부모와 자녀 관계도 친밀성과 신뢰가 높았다. 영도와 예리는 자신 어머니의 어머니 노릇에 만족하고 있었다. 영도와 예리에게 어머니는 자신의 자율성을 존중해주면서도, 자신이 결정한 점에 있어서는 최대한의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면서도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꺼내고, 삶에서 자신의 말을 실천하기 때문에 “엄마가 하는 말이 뭐든지 정말 맞는 말” 이고, “대단하신 분” 이라고 느낀다.

2) ‘유지’ 유형 어머니의 청소년 자녀: “바닥을 깔아줄까 봐”, “돈을 벌고 싶어져서” 진학한 학교

어머니가 실천적 감각의 ‘유지’로 분류되는 연구참여자 청소년은 사회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복합적인 어려움을 경험한다. 해당하는 사례는 한배, 유라, 하나이다. 한배, 유라, 하나 어머니는 자녀가 교육에서 부딪치는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유라와 하나의 어머니들은 김효정(2010)이 지적하듯 가정의 생계유지에 맞추어 어머니 노릇을 구성하는 것으로 느껴진다. 자녀 교육에 대한 미개입은 어머니가 이주 이전에 형성한 실천적 감각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 사회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목표 속에서 정당성을 얻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조건에서는 자녀 또한 사회경제적인 제약을 강하게 의식한다.

유라 또한 예리와 마찬가지로 “저는 이미 늦었더라고요”라는 말로 자신의 예고 진학 포기를 설명했다. 그러나 연구자가 느끼기로는 유라의 경우 자신이 늦었다는 표현은 예고를 지망하기 위한 실력이 부족했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예고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집안 사정을 좀 더 편하게 받아들이고자 하는 장치인 듯했다. 유라는 고등학교 진학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교복이 100만원”, “한 학기 200만원”, “돈이 문제”라고 말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반복해서 이야기 했다. 이후 유라는 돈을 벌어서 집에 보태야겠다는 마음이 강해졌고, 고등학교를 특성화고로 지원했다. 어머니는 일반계를 가야한다면서 반대했다. 유라는 눈물로 호소하기도 하고, 특성화고를 나와도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어머니를 설득했다.

“이게 ... 그 때 되게 진짜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일반계로 갈지 실업계를 갈지. 고민을 하기 전에는 나는 예고를 갈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돈도 그렇고, 내 실력이 거기 갈만한 실력인가? 그런 실력도 많이 했는데. 돈에 부딪쳐서 ... 돈이 너무 많이 들 테니까. 거기는 그냥 포기했어요. 그 다음에 실업계로 갈지 일반계로 갈지 고민

을 했는데, 일반계를 가면 내가 바닥을 깔아줄까 봐.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실업계에서는 그 실업계는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은 반 이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엄마가 일반계를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중략)… 그래서 일반계를 가서 대학을 가는 게 어떨겠냐. 아 실업계도, 실업계도 가는 방법이 있다고. 거기는 취업도 준비를 하고, 그 대학 진학 준비도 가능하다고” (유라, 특성화(상업) 고등학교 2학년)

빈곤을 경험한 학생들은 특성화 고등학교, 그 중 과거 실업계라 불렸던 고등학교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다. 빈곤은 사교육비, 부모의 생활 감동, 자녀에 대한 부모의 교육적 기대 등을 매개로 하여 청소년 자녀의 특성화고 진학 의사에 영향을 끼친다(오승환·김광혁, 2012). 대학 등록금에 대한 부담금 때문에 일반계 고교 진학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 대환 어머니의 진술을 따르자면, 대환이 대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특성화 고등학교로 전학을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는 대학 등록금이었다.

유라가 특성화고를 나와도 대학을 진학할 수 있다며 어머니를 설득했다는 점은 흥미롭다. 앞선 절에서 유라 어머니가 “공부를 해야 한다”, “자녀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는 두 가지 실천적 감각 사이의 충돌을 “특성화고는 보내지만 전공 계열은 자신이 정하는” 방식으로 다루었다고 짚은 바 있다. 유라와 유라 어머니 사이에서 나타나는 시각의 차이를 고려해야 하기는 하지만, “자녀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 “자녀가 더 잘 안다”는 실천적 감각에 주목한다면 특성화 고등학교를 지망하고자 하는 자녀들의 의사가 국제결혼가족의 어머니들에게 더 잘 받아들여질 수 있으리라는 점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면접에 참여한 유라 외에도, 연구에 참여한 가족 사례를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특성화 고등학교 재학생은 많았다. 한배의 형과 유하도 특성화고를 나왔다. 대환과 대환의 여동생은 현재 특성화고를 다니고 있다. 성진 어머니는 성진이를 특

성화고로 보낼 계획을 하고 있다.

손준중(2010)이 지적하듯이 학교 계열에 따라 학생들의 경험은 달라진다. 유라에게 고등학교 생활에 대해 물어봤을 때 유라는 선생님들이 “자기가 [수업이] 끝나면 학생들도 [이해가] 끝난 줄” 알며 “니네가 알아서 따라와” 라는 식으로 수업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기억에 남는 것은 선생님이 무섭다는 점, 영어 시간에 혼났다는 점들이다. 한배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형처럼 특성화고를 가라고 했지만, 불량한 형들이 많았다고 소문을 들었고 “형도 오지 말라고” 해서 지금의 일반계로 진학했다고 했다. 다만 김범석·손준중(2015)이 보고하듯 최근에는 특성화고 진학에 실패한 학생이 일반고를 진학하는 ‘일반고 슬럼화’ 현상도 나타나기에, 대개 일반고가 특성화고보다 좋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인식을 쉽사리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어느 쪽이던 간에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국제결혼 자녀들이 수평적 계층화 구도에서 주변화 된 학교로 진학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유라는 초창기 다른 여상을 지원하려고 했다가 점수가 부족해서 더 낮은 지금의 여상으로 지원했다. 한배와 하나 모두 지금의 고등학교를 1지망으로 썼던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자신은 공부를 잘 못하는데 이 학교로 가면 ‘내신을 잘 딸 수 있다’ 는 것이었다.

주변화 된 학교로 진학해서 겪게 되는 차이도 있지만, 학교 내에서 주변화 되는 경험도 있다. 일반계 고등학교로 진학한 하나는 고등학교로 올라오니 “확실히 상위권 애들만 선생님이 신경써주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학교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신경써주거나, 공부 1등하는 학생에게 상장을 몰아주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고는 한다. 자신은 공부를 못하기에 관심에서는 벗어나 있다. 관심이 있는 식물 쪽으로 대학을 가려면 이과를 가야하는데, 수학을 못해서 걱정이다. 선생님과 상담을 했을 때는 관심 분야인 식물에 관련된 자율 동아리를 만들어 보라는 조언 정도만 받았다.

김천기(2012)가 지적하듯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개별 학교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공부를 잘 하는 학생들 혹은 두각을 드러내는 학생들에게 집중하게 된다. 학교 입장에서 보기에 하위권에 속하는 학생들은 관심을 덜 기울이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이다. 학교의 이런 태도는 상위권에 속하지 않는 하나보다는, 상위권이었던 영도가 또한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영도는 “학교 밖으로 나가는 애들은 다 비슷비슷하다”는 말로 상위권에만 집중하는 학교의 전략을 설명했다.

“네, 대표로 하는 애들 … (침묵) 중학 …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실험 대회가 있다 치면, 그 … 저도 같이 그런 대회를 나갔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있거든요. 걔가 매우 공부를 잘 하던 애였는데, 걔가 공부를 잘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 사이에는 입소문이 퍼지게 되겠고. 뭐 대회라든가 있으면 이제 추천? 이라 해야 하나 그런 게 있으면 선생님들도 다 그 애를 추천하고 할 테니까. 걔는 또 대회를 나가게 될 거고. 또 나간 경력이 있으니까 다음 대회에 불릴 거고. 네, 그렇게 되어서 ‘나가는 애들이 나간다’는 게 그 얘데요” (영도, 대학교 1학년(물리학과))

‘유지’ 유형에 해당하는 어머니를 둔 자녀들은 학업이나 진학에서 부딪치는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하는 편이다. 모르는 공부는 친한 친구들에게 물어봐서 해결한다. 한배와 하나 모두 고등학교에서 주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향후 진로·진학에 대한 정보도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유라), 인터넷에서 혼자 검색하거나(하나, 한배) 하는 식으로 찾는다.

결국 사회경제적인 수준과, 자녀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어머니의 실천적인 감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례에 해당하는 국제결혼 청소년 자녀들은 진학 과정에서는 상대적으로 주변화 된 학교를 지망할 가능성이, 학교에서는 관심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확장’ 사례와 마찬가지로 부모 자녀 사이는 좋은 편이었으나, 어머니가 지닌 실천적 감각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 하나는 자신의 공부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엄마가 편하기도 하지만 서운할 때도 있다. “조금은 신경써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이렇게 방치해줬다가 내가 어떻게 대학도 못가고 그러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있다. 유라는 자신의 자율성을 존중한다고 말하면서, 성적에는 신경 쓰는 어머니의 모습에 불만을 표했다. 다들 때마다 어머니가 “나에게 리스펙트(respect)하라” 는 말을 계속해서 하는데, 유라는 그 리스펙트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3) ‘전환’ 유형 어머니의 청소년 자녀: 나는 “게임만 하고 공부하고 ... 공부하는 사람”

여기서는 문화적 안내인이 제시한 어머니 노릇을 수용한 국제결혼 어머니들의 자녀가 겪은 교육 경험을 서술한다. 하지만 ‘전환’ 유형에 해당하는 어머니를 둔 청소년 자녀 연구참여자는 모두 중학생이었기에 고등학교 진학 단계부터 두드러지는 진로·진학 등의 문제를 포괄하는 양상을 담아낼 수는 없었다.

한국의 문화적 안내인이 제시하는 전략은 동일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수재나 세류 어머니는 ‘직장 언니’, ‘옆집 엄마’ 등 문화적 안내인으로부터 한국 교육이라는 장 내에서 좋은 학업 성취를 내기 위한 전략을 제시받았다. 과외를 적극적으로 시키거나, 좋은 문제집을 체계적으로 풀게 하는 등의 전략이었다. 그 결과는 가구 소득 수준과 교육비 투자 규모를 비교했을 때 드러나는데, 수재 어머니는 가장 한국 평균에 가까운 투자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환 어머니의 문화적 안내인인 ‘남편의 남동생’은 ‘일반계고에서 특성화고로의 이동’이라는 전략을

제시했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본 절은 앞선 절보다는 훨씬 탐색적인 성격을 많이 지닌다. 학업을 둘러싼 진술들을 바탕으로 한국식 ‘어머니 노릇’을 수용한 결과를 일부 보이고자 한다.

수재에게 스스로 어떤 학생이라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수재는 “수학만 열심히 하는 학생”, “게임만 하고, 공부하고 … 공부하는 사람”이라 답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인 지금까지 수학 과외를 계속하고 있다. 일주일에 2~3번씩 1시간 반씩 과외를 한다. 과외가 끝난 이후에도 과외에서 내준 숙제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남은 시간에는 핸드폰으로 게임을 한다. 작년 2학기부터는 영어 과외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다. 수재와 인터뷰를 마친 후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수재 어머니는 수재에게 전화를 해서 숙제를 제대로 다 했느냐고 다그쳤다. 수재는 인상을 찌푸리며 알겠다고 답했다. 수재는 어머니가 자신을 가르치면서 공부만을 절대시 한다고 느낀다. 학교에서 수학 성적은 두각을 나타내는 편이고, 친구들이 와서 모르는 것을 물어보기도 했다.

세류 또한 집에서 게임하거나 학습지로 문제를 풀면서 공부하면서 시간을 보낸다고 했다. 수학과 영어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하루에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공부를 한다. 공부는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하기 보다는 어머니가 하라고 해서 하는 편이다. 어머니와의 관계는 갈등적이다. 세류 어머니는 “세류가 나에게 얘기를 안 한다”고 말했다. 세류의 집에서 인터뷰를 마치고 나올 때, 세류 어머니는 세류가 제대로 인사를 했는지 확인했고 세류는 짜증난다는 투로 “아, 했어요”라고 답했다. 세류의 학업 성취는 나쁜 편이다.

숙제 등 일상적인 학업 관리를 둘러싼 갈등은 연구참여자 가족 중 ‘전환’ 사례에 해당하는 수재 어머니-수재, 세류 어머니-세류 사례에서

만 나타났다. 다만, 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갈등에 대해 세류 어머니는, 남편이 아내인 자신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며 세류가 어머니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 여기고 있었다.

3. 소결

요약하자면 국제결혼가족 청소년들은 자신의 어머니들이 한국 어머니들과 달리 지니고 있는 실천적 감각 때문에 ‘선행학습’ 개념의 사교육을 중학교 이후에, 그리고 다른 청소년들보다 적게 이용한다. 한국 공교육이 사교육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이기에 국제결혼가족 청소년들은 사교육 활용의 부재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어려움들에 노출된다. 학교는 ‘성과’를 내기 위해 상위권 학생들에게 집중하며, 이 과정에서 성적이 낮은 편인 국제결혼가족 청소년들은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 고교 다양화로 인해 발생한 수평적 계층화와, 진학 경쟁 맥락에서 국제결혼가족 청소년들은 성적 및 정보 부족으로 인해 희망하는 학교를 진학하기 못하거나, 하향 지원을 할 가능성이 높다. 자녀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한국 교육은 자녀가 더 잘 안다는 어머니들의 실천적 감각은 결과적으로 자녀의 교육 경험을 주변화 하는 결과를 낳는다. 일부 어머니들은 한국식의 ‘어머니 노릇’을 수용하여서, 자녀의 학업을 일상적으로 관리하기도 했다. 이 경우 자녀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로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갈등적 요소를 지니고 있었다.

VI. 결론

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국제결혼가족의 교육 경험을 탐색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한국 교육’이라는 맥락을 강조하고자 했다. 청소년 자녀들이 학업, 진학, 진로라는 문제에 부딪치면서, 그 기저에 있는 한국 어머니들과 국제결혼 어머니들의 ‘어머니 노릇’ 차이가 드러난다.

본 연구에 참여한 많은 국제결혼 어머니들에게 나타났던 특징은 이주 이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한 실천적 감각이 ‘어머니 노릇’ 구성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이다. 연구참여자 어머니들의 실천적 감각은 가사 노동에 자녀가 참여해야 하고, 사교육은 학교 공부를 보완하기 위해 쓰는 것이고, 공교육은 교육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여기는 등 한국에서 이상적인 것으로 그려지는 ‘어머니 노릇’과는 반대되는 면이 많았다. 연구에 참여한 국제결혼 어머니들이 자신의 실천적 감각을 자녀 교육·양육에 적용할 수 있던 배경에는, 한국의 성별 분업 이데올로기와 도시 지역에서 두드러지는 핵가족 구조가 있다.

그러나 실천적 감각의 활용은 자녀가 한국 공교육 제도에 들어간 이후에는 분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어머니 노릇’은 자녀 교육에 관여하면서, 혹은 일 경험을 통해 한국 교육을 직접적으로 겪으면서 달라진다. 어머니가 동원 가능한 여러 자본들의 양은 한국 교육을 경험하는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자면, 자녀 교육에 투자 가능한 경제적 자본이 많을수록 자녀 교육에도 많이 관여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하지만 모어를 활용해서 청소년 사교육 시장에서 일을 했던 사례처럼, 한국 교육을 체험하는 경로에 영향을 끼치는 자본은 다양하다.

동원 가능한 자본과, 한국 교육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분석 결과 세 가지 유형을 파악할 수 있었다. 먼저, ‘확장’과 ‘유지’로 대별되는

두 유형이 나타난다. 확장 사례에 속한 어머니들은 자녀 교육에서의 주요 가치는 이주 이전에 형성한 실천적 감각을 유지하지만, 한국이라는 맥락을 고려하여 자녀 교육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자신이 한국 교육 내에서 자녀 교육과 관련된 어머니 노릇을 실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결혼이주자인 자신에게 배태되어 있는 초국적 연결망을 동원하여 대안을 찾아내고자 한다.

유지 사례에 해당하는 연구참여자 어머니들은 자녀 교육에서의 주요 가치뿐만 아니라 그 실천도 이주 이전에 형성한 실천적 감각을 유지한다. 한국이라는 맥락은 추상적으로 인식하며, 자녀 교육에 대한 관여는 기존의 실천적 감각을 바탕으로 해결 가능한 영역에만 국한한다. 한국 교육 내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식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자녀의 자율성 존중’이라는 실천적 감각에 의지하여 청소년 자녀에게 결정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해결한다.

세 번째 유형으로, 한국에서 만난 문화적 안내인들이 제시하는 ‘어머니 노릇’을 받아들이는 ‘전환’ 사례도 있다. 문화적 안내인들이 제시하는 ‘어머니 노릇’의 모습은 각 문화적 안내인들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다르다. 또한 문화적 안내인으로부터 자녀 교육뿐만 아니라 한국에서의 삶 전반을 조언 받는 경우도 두드러진다. 문화적 안내인이 비슷한 사회경제적 지위에 있는 한국 어머니들인 경우, 연구참여자 어머니들은 한국의 어머니 노릇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물론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구체적인 형태는 다르다.

많은 어머니들이 지닌 교육에 관한 실천적 감각이 신자유주의적 한국 교육이 요구하는 ‘전업 어머니’ 정체성과 다르기에, 국제결혼가족의 중·고등학교 청소년 자녀들은 학업, 진학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이 어려움은 특히 사교육의 소극적·보완적 활용과, 자녀가 한국 교육을 다루는 능력에 대한 기대에 따라 나타난다. ‘확장’에 해당하는 가족의 자녀

들은 상위권 경쟁에서, ‘유지’에 해당하는 가족의 자녀들은 중위권 이하의 경쟁에서 밀려나는 경험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신자유주의적 교육 정책에 따른 학교 간 구분 및 학교 내 학생 간 구분이, 경쟁에서 밀려난 학생들의 경험을 고착화시킨다는 한국 교육사회학의 선행연구를 지지한다.

‘전환’에 해당하는 자녀들은 학업에 경험이 비슷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지닌 한국 학생들과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그 때문에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어머니와 갈등을 빚고 있었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이론적·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결혼 가족들이 겪는 교육 경험이 이주 배경이라는 맥락 뿐 아니라 한국 사회의 신자유주의 교육 맥락과 긴밀히 결부되어 있다는 결론은, 기존 한국의 교육사회학에서 축적된 이론적 자원들을 소위 ‘다문화교육’에 적용하는 시도가 적실할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국제결혼 가족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교육이 지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로부터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준다.

둘째, 국제결혼 어머니들이 원가족 경험을 바탕으로 습득한 실천적 감각을 중심으로 어머니 노릇을 구성한다는 결론은, 많은 국제결혼 어머니들이 ‘한국인 어머니가 되려 한다’는 보고(윤명숙·이해경, 2011; 이소희 외, 2014; 이부미, 2016)들과는 배치되는 연구이다. 이은아(2013)가 지적하듯이 한국의 어머니 노릇 압력에 국제결혼 어머니들이 취하는 양상은 다양하며, 그 내적인 논리에 대해서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문에서 라루(2015)의 논의를 빌려 제시한 문화적 안내인은 ‘한국인 어머니가 되려 한다’는 선행 연구를 보다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렌즈가 될 수 있다.

셋째, 국제결혼 어머니가 자녀 교육을 위해 초국적 연결망을 동원하여 대안을 탐색한다는 결론은, 초국적 연결망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선행 연

구들(김정선, 2012; 이은아, 2013)과 일치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드러난 구체적인 실천에는 현재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뿐만 아니라, 국가 및 언어의 위계에 기반을 둔 차이가 존재했다. 초국적 연결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결혼이주에 배태되어 있는 사회적 연결망·문화적 자본뿐만 아니라 자본들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는 현재 시점에서 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국제결혼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이들은 한국 사회의 다문화 혹은 이민 담론이 부각되기 시작한 2009년 이전에 한국에 정착했다. 따라서 통합의 양상(mode of incorporation)이 다른 지금의 국제결혼가족들이 향후 보일 양상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는 연구 설계상의 제한점이 있다. 또한 어머니에 비해 자녀들의 표집이 제한되어, 양 쪽의 경험이 균형 있으면서도 세세하게 담기지 못한 연구진행 상의 한계도 지닌다. 특히 이 문제는 문화적 안내인을 지닌 국제결혼 어머니의 청소년 자녀들 시각에서 경험을 적실하게 포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두드러진다. 특히, 고등학생들의 경험에서 두드러지는 진학·진로 문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못했다.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한국 국제결혼가족의 교육 경험에 대한 이해, 더 나아가 교육사회학 및 다문화교육 전반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교육통계연구센터(2016) <http://cesi.kedi.re.kr/index>
- 국가통계포털(2016) <http://kosis.kr/>
- 권해수(2011) 농촌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청소년기 경험에 관한 연구. 농촌지도와 개발, 18(1), 35-72.
- 강일국(2015) 농촌지역 결혼이주 가정 중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13(3), 155-166.
- 김건숙·최은미·이호준(2014)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또래관계 친밀감 경험에 관한 질적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5(2), 51-81.
- 김경식·안우환(2003) 학업성취 결정요인으로서 가족의 사회적 자본 탐색. 교육학논총, 2(1), 81-99.
- 김광혁(2012) 가족빈곤과 가족구조가 청소년의 학업태도에 미치는 영향 - 가족빈곤의 시간과 다양한 가족 구조를 중심으로 -. 사회과학논총, 27(2), 41-55.
- 김기현·이재희·홍혜미(2013) 결혼 이주 가정 및 중도 입국 청소년들의 민족 정체성 탐색과 형성. 사회복지연구, 44(1), 165-192.
- 김미란(2014) 대학생들은 부모의 사회계층에 따라 어떻게 다른 대학생활을 경험하고 있는가?: 서울의 한 여자대학교 학생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24(2), 25-65.
- 김성식·류방란(2008) 학교 경험의 영향력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8(2), 31-51.
- 김성식·송혜정(2009) 학교 불만족과 특목고 진학 경쟁이 사교육 시간과 비용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19(4), 21-46.
- 김영은(2014)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경험 연구에 대한 비판적 분석. 윤리교육연구, 33, 54-81.
- 김영화(2012) 문화자본의 개념화와 문화자본 연구의 주요 쟁점에 관한 비판적 검토. 교육사회학연구, 22(2), 31-63.
- 김혜숙·한대동·남현숙(2012) 중학생의 사교육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질적연구. 청소년학연구, 19(1), 251-278.
- 강태중·강충서(2013) 사교육 담론에 담긴 학교 교육의 의미 역사적 고찰. 교육사회학연구, 23(4), 1-28.
- 김성식·류방란(2008) 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가정 배경, 학생 노력, 학교 경험의 영향력

-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8(2), 31-51.
- 김성식·송혜정(2009) 학교 불만족과 특목고 진학 경쟁이 사교육 시간과 비용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19(4), 21-46.
- 김수미·정경은(2013) 다문화 청소년의 낙인경험에 관한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34, 28-49.
- 김위정(2012) 계층간 학력 격차의 변화: 학교정책의 영향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22(3), 49-76.
- 김정선(2010) 아래로부터의 초국적 귀속의 정치학: 필리핀 결혼이주 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6(2), 1-39.
- 김정훈·김을식·이다겸(2016) 소득·자산기반 중산층 측정 및 계층이동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재정학연구, 9(3), 157-192
- 김정희(2004) 제도화된 모성 경험과 변화의 방향 “ 지역성 부재 ” 의 변화를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21(1), 117-156.
- 김중훈(2014)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학교교육 참여 경험에 관한 사례 연구. 초등교육연구, 27(4), 105-129.
- 안지영·김지훈(2014) 저소득층 국제재혼가족 전혼자녀(前婚子女)의 가족 경험에 대한 탐색적 연구: 베트남 출신 새어머니를 둔 한국인 청소년을 중심으로. 가족과문화, 26(4), 25-87.
- 김천기(2012) 한국교육의 신자유주의화 과정과 그 성격: 학교의 입시학원화와 “자율적 통치성” 강화. 교육종합연구, 19(1), 119-149.
- 김효정(2010) 저소득층 기혼여성의 노동의 의미에 관한 연구 : 소규모 식당노동 종사자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6(1), 1-33.
- 남부현·김옥남(2012) 여성결혼이민자의 학부모 역할에 대한 질적 연구 - 수도권 지역의 고학력여성을 중심으로 -. 청소년복지연구, 14(4), 113-142.
- 동그라미재단(2016) 한국사회 기회 불평등 조사 보고서
- 류진아(201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녀 취학관련 경험과 대처방식에 관한 사례연구. 상담학연구, 12(2), 599-620.
- 박미숙·이미정(2014)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갈등원인에 관한 연구. 교육문화연구, 26(3), 149-174.
- 박미희·김성식(2013) 대학입시 준비 경험이 대학진학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23(1), 1-24.
- 박소진(2007) 공간적 위계수사와 구별짓기 : 강북 어머니들의 자녀교육 내러티브. 한국

- 문화인류학, 4(A), 43-81.
- 박소진(2009) “자기관리”와 “가족경영” 시대의 불안한 삶 - 신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적 주체. 경제와사회, 12-39.
- 박윤경·이소연(2009)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생활 실태에 대한 조사 연구 : 집단 간 차이와 집단 내 다양성. 시민교육연구, 4(1), 41-71.
- 박혜경(2009) 한국 중산층의 자녀교육 경쟁과 “전업 어머니” 정체성. 한국여성학, 25(3), 5-33.
- 변수용·김경근(2008) 한국 고등학생의 교육결과에 대한 문화자본의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18(2), 53-82.
- 변수용·김경근(2008) 부모의 교육적 관여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가정배경의 영향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18(1), 39-66.
- 변수용·김경근(2010) 한국사회 고등교육 계층화의 영향요인 분석: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20(1), 73-102.
- 보네위츠, 파트리스(Bonnewitz, Patrice)(1997) 『부르디외 사회학 입문』. (문경자 역). 동문선.
- 부르디외, 피에르(Bourdieu, Pierre)(1994) 『실천이성: 행동의 이론에 대하여』. (김웅권 역). 동문선.
- 사이드먼, 어빙(Irving, Seidman)(2009) 『질적 연구 방법으로서의 면담』. (박혜준·이승연 역). 학지사.
- 서근원(2008) 교육열의 의미에 관한 한 해석 - 사회적 상황의 변화와 관련해서 -. 교육인류학연구, 11(1), 177-201.
- 서덕희(2011) 농촌 국제결혼가정 아동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맥락적 이해 : 전남 소규모 초등학교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21(2), 87-120.
- 손승영(2009) 한국 가족의 청소년 자녀 사회화 연구: 부모의 기대와 개입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0(1), 57-84.
- 손준중(2009) 자녀교육의 여성화에 관한 연구. 교육문제연구, 34, 25-58.
- 손준중(2010) 한국 고등학교의 수평적 계층화에 관한 이해와 비판. 교육사회학연구, 20(4), 139-169.
- 손준중(2012) 교육정책과 수의 지배: 신자유주의적 통치 양식으로서 수량화 비판. 교육사회학연구, 22(1), 109-139.
- 엄명용(2013) 다문화가정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 사회 적응 영향 요인. 한국가족복지학,

42, 39-82.

- 오민석(2011)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의 현실과 과제: 여섯 가정을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4(1), 43-77.
- 오욱환(2008) 교육격차의 원인에 대한 직시 : 학교를 넘어서 가족과 사회로. *교육사회학연구*, 18(3), 111-133.
- 윤명숙·이혜경(2011)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의 부모 됨을 통한 적응 경험 *. *한국가족복지학*, 32, 103-135.
- 윤재희·유향선(2011) 결혼이주여성의 어머니하기. *다문화콘텐츠연구*, 11, 41-80. *다문화교육연구*, 4(1), 43-77.
- 이광현(2012) 특목고·자사고 진학계획이 초등학생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22(2), 155-178.
- 이두휴(2008) 자녀교육지원활동에 나타난 학부모 문화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18(3), 135-165.
- 이민경(2007) 중산층 어머니들의 자녀교육 담론 : 자녀교육 지원태도에 대한 의미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7(3), 159-181.
- 이민경·김경근(2010) 이주가정 학부모들의 자녀교육 욕구 : 자녀교육 욕구 표출 양상과 의미화. *교육사회학연구*, 20(2), 129-156.
- 이부미(2016) 다문화가정 부모들의 목소리. *유아교육학논집*, 20(2), 397-418.
- 이선형(2011) 구술생애사를 통해 본 한국여성들의 모성인식에 대한 세대비교연구. *페미니즘연구*, 11(1), 59-99.
- 이성희(2013) 부르다외의 “아비투스”·장·자본의 상호형성 메커니즘 - 이론적 고찰과 경험적 연구의 활성화 방안 -. *교육사회학연구*, 23(2), 151-171.
- 이소희·박영례·김애림·박성은(2014)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영유아기 자녀 양육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복지저널*, 19(4), 805-829.
- 이유정·김병수(2013)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연결망과 교육지원행위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인과의 관계형성 과정 및 유형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5(2), 129-167.
- 이은아(2013) 도시 결혼이주여성의 어머니 노릇과 정체성 : 자녀교육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9(3), 115-146.
- 이재경(2004) 노동자계급 여성의 어머니 노릇(Mothering)의 구성과 갈등: 경인지역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2(1), 82-117.
- 이채원·박현선·노연희·이상균(2013) 한국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어머니역할 찾아가기

- 과정 - 근거이론적 접근 -. 한국가족복지학, 41, 251-279.
- 전은희(2012) 모계 국제결혼가정 아동들의 차이와 가시화에 대한 질적연구 : 중소 도시 초등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초등교육연구, 25(3), 83-112.
- 전은희(2015) 저소득층 국제결혼가정 청소년의 학교경험에 대한 생애사 연구 : 외교 사회통합전형 입학생의 중도탈락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6(3), 5-45.
- 정지윤·문성호(2011)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18(8), 265-289.
- 조혜선(2004) 조기교육과 어머니 역할. 한국여성학, 20(1), 123-161.
- 조혜영·서덕희·권순희(2008)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업수행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교육 사회학연구, 18(2), 105-134.
- 최셋별(2002) 상류계층 공고화에 있어서의 상류계층 여성과 문화자본 - 한국의 서양고 전음악전공여성 사례. 한국사회학, 36(1), 113-144.
- 최선영·장경섭(2012) 압축산업화 시대 노동계급가족 가부장제의 물질적 모순 - “남성생 계부양자” 노동생애 불안정성의 가족 전이. 한국사회학, 46(2), 203-230.
- 한국교육개발원(2015) 교육통계분석자료집, 유·초·중등 교육통계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4)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총괄보고서.
- 현대경제연구원(2013) OECD 기준 중산층과 체감중산층의 괴리
- 한유리(2015) 『질적 연구 입문』. 박영사.
- 홍지아(2014) 한국모성담론의 역사성 - <신여성>과 EBS <부모>가 제시하는 모성의 구성 방식 비교를 중심으로. 현상과인식, 38(1/2), 205-228.
- 황갑진(2006) 교육현상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인식과 가정환경의 영향 -대학서열과 입시 교육의 문제를 중심으로-. 사회과교육연구, 13(3), 69-92.
- Lareau, A. (2015) Cultural Knowledge and Social Inequali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80(1), 1-27.
- Nicolini, D. (2012) *Practice Theory, Work & Organization: An introdu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Park, S. J. (2007) Education Manager Mothers: South Korea's Neoliberal Transformation. *Korea Journal*, 47(3), 186-213.

Abstract

Navigating Children's Educa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An Exploratory Study on Educational Experience of Secondary School-aged Children and their Mothers in Korea

Yang-hyuh Kim

Master's Dissertation

Supervised by Professor Jeehun Kim and Eul-Kyoo Bae

Department of Multicultural Studies and Education

Multicultural Education Major

Inha University

June 2016

This Thesis conducted an exploratory study on educational experience of secondary school-aged children and their mothers in Korea. Semi-structured in-depth interview were conducted with 12 families(12 mothers and 7 adolescents). With deepening Neo-liberalism in Korea, education for children became complex and competitive continuously so that class reproduction is perpetuated. This study adopted the theoretical perspective from sociology of education and family emphasizing the crucial role of 'Mothering' for analyzing Korean education and society, and its embeddedness. Moreover, it used Bourdieu's contention to the relation between social position and class reproduction strategies for interpreting the experience of participants.

This thesis found that the mothering of 'Multicultural' mothers was constructed mainly by their practical sense(*Sens pratique*) formed through childhood experience before migration. Henceforth, this mothering was reconstructed through their experience of Korean education, and the existence of 'Cultural guide'. The mothering differentiated into 3 types. 'Expansion' and 'Maintenance' types of mothering emerged depending on the difference experience of Korean education, 'Transformation' types occurred by the influence of 'Cultural guide'. The school experience of the adolescents was differentiated into along with the type of their

mother' s mothering. However, they have difficulty in dealing with schoolwork and career management in common because of difference between their mothering and the 'Mothering' that Neo-liberalistic Korea society forces.

'Multicultural' mothers constructed their mothering depending on their practical sense. These mothering were different with Korea 'Manager mothers' that engage in their children' s education deliberately and systematically from early years.

However, their mothering has been differentiate in 3 ways facing Korean education reality differently along with diverse capitals of family they can mobilize for education, and 'Cultural guide' mothers met during live in Korea.

First, in the 'Expansion' of practical sense, mothers maintained their practical sense in the aspect of educational value, but actively engage in children' s education. Second, in the 'Maintenance' of practical sense, mothers keep their practical sense not only in the aspect of educational value, but also educational practice. Third, in the 'Transformation' of practical sense, mothers accepted 'rules of games' suggested by Korean 'cultural guide' who is significant other for participant mothers.

Even though some 'Multicultural' mothers have changed their practical sense over time, the adolescent of 'Multicultural' family lagged behind other Korean adolescent in the field of study and educational transition due to the Korean education context that using private education is fundamental and it' s starting point become earlier. it is for not only 'Maintenance' case adolescent that suffer from socio-economic constraint, but also 'Expansion' case adolescent that can afford a educational competition in Korea. In the 'Transformation' case, adolescent complained about their mother' s effort to micro-mange their study as like other 'Korean' students.

This study suggest that 'mothering' of these mothers have been constructed in diverse trajectories, but influenced by practical sense based on social position in homeland before migration. The experience of children in Korean education have been shaped in the shadow of 'mothering' contrary to Korean 'Manager mother' . However, it is restrictive for taxonomical description to use 12 family cases. Particularly, because only 7 adolescent participated directly in this study, it has risk of over-generalization more than description of mother side. Henceforward, the expanded-size study is necessary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this thesis.

<부록 1> 연구참여자의 기본 인적 사항과 가족 배경

가족 구분	모출신	가족 내 지위	가명	나이 (만)	학력 정보	월평균 가구소득	월평균 교육비용	이용 기관 (현)	가족 수 (소득자 수)	동거 가족 구성 (연구참여자 및 연구 참여예정자 제외)	직업정보 (모/부)
A	중국	어머니	홍화	37	대졸 (3년제, 중국-산림)	700만	80만	학원	4인/2인	남편(미확인 ⁵) 둘째 아들(13)	연구 보조원 (생명연구소)
		첫째 딸	미영	14	중 3						
B	일본	어머니	유이	42	대학원졸 (석사, 한국-특수교육) ⁷	500만	75만	학원 과외 방과후	4인/2인	남편(45) 둘째 아들(13)	일본어 강사 (기업 내)
		첫째 딸	예리	16	고 2 (인문계-미술중점)						
C	우즈베크	어머니	한미	36	중졸	350만	70만	과외	6인/2인	어머니(61) 남편(49) 여동생(31) 둘째 딸(11)	회사원
		첫째 아들	수재	13	중 2						
D	일본	어머니	도모코	45	대졸 (4년제, 일본-문학)	300만	20만	과외 눈높이 인강	6인/2인	남편(47) 둘째 아들(10) 셋째 아들(7) 넷째 딸(5)	일본어 강사 (대기업 사원, 외고 학생 등)
		첫째 아들	준식	15	고 1 (인문계)						
E	일본	어머니	케이코	50	고졸	250만	15만	학원	5인/2인	남편(50) 첫째 딸(20) 셋째 아들(12)	자영업 (노점상)
		둘째 딸	유하	18	대 1 (3년제 - 유아교육과)						
F	베트남	어머니	자민	43	대학 중퇴 (4년제, 베트남-회계)	250만	없음	없음	5인/1인	남편(50) 첫째아들(19) 셋째 딸(4)	없음
		둘째 아들	한배	17	고 2 (인문계-문과)						
G	몽골	어머니	바얀	49	중졸	230만	18만	학원 방과후	3인/1인	남편(52) 첫째 아들(14)	없음
			성진	14	중 3						
H	중국	어머니	지혜	44	대졸 (방송통신, 한국-중국어) ⁷	200만	60만	공부방	4인/1인	둘째 아들(15) 셋째 아들(4)	계약직 공무원
		첫째 아들	영도	18	대 1 (4년제, 한국-물리학)						
I	필리핀	어머니	미예	51	대졸 (4년제, 필리핀-회계)	180만	18만	방과후 멘토링	4인/1인	시어머니(78) 남편(55) 둘째 딸(15)	없음
		첫째 아들	대환	17	고 3 (특성화고-스마트미디어)						
J	일본	어머니	미야코	50	대졸 (2년제, 일본-치기공)	80만	없음	멘토링	7인/1인	남편(50) 첫째 딸(20) 둘째 딸(18) 넷째 아들(14) 다섯째 딸(9)	일본어 강사 (대기업 사원, 주민센터 등)
		셋째 딸	하나	16	고 2 (인문계-문과)						
K	필리핀	어머니	린	40	대졸 (4년제, 필리핀-교육)	78만	없음	방과후 멘토링 복지관	3인/1인	둘째 딸(10)	바리스타 인턴
		첫째 딸	유라	16	고 2 (특성화고-상업)						
L	태국	어머니	지현	50	대졸 (4년제, 태국-전통무용)	없음	없음	없음	4인/0인	남편(54) 둘째 딸(10)	없음
		첫째 아들	세류	12	중 1						

- 주: 1) 연구참여자가 희망한 가명을 우선하되, 희망 가명이 본명과 너무 비슷하여 신원이 드러날 위험이 있거나, 이름으로 이해되기 곤란한 경우 희망한 가명을 반영하여 새로 가명을 부여함.
 2) 나이는 인터뷰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함. 동거 가족들의 나이 계산은 먼저 가족 중 연구에 참여한 사람의 인터뷰 날짜를 기준으로 함. 부모-자녀 모두 참여한 경우 먼저 실시한 인터뷰 날짜를 기준으로 삼음.
 3) 동거 가족의 호칭 기준은 어머니를 중심으로 함.
 4) 연구참여 가족의 배치 순서는 월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함.
 5) 미확인 사항은 추가적인 조사를 했으나 응답하지 않았거나, 연구참여자의 사정으로 추가적인 조사를 할 수 없던 사례임.
 6) 미영의 경우 연구참여자 가족에 사정이 생겨 인터뷰를 실시하지 못함. 준식과 유하는 인터뷰 참여를 요청했으나 거부함. 성진과 대환은 학교 학사 일정으로 인해 인터뷰를 방학으로 미룸.
 7) 영도 어머니는 중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한국에서 방송통신대를 진학했음. 예리 어머니는 일본에서는 평생교육과 심리학을 복수전공하고, 한국에서는 3년 전 대학원을 진학하여 특수교육 전공으로 졸업함.

질문지(어머니용)

자녀 교육 지원 행위 관련

1. 자녀가 어느 정도까지 공부하기를 원하십니까? 왜 그 정도까지 공부해야 한다고 느끼십니까?
2. 자녀를 교육 기관에 보내게 되면서 한국 교육에 대해 새로 알게 되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해당한다면) 고등학교 시기가 되면서 그 내용은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3. 초등학교, 중학교, (해당한다면) 고등학교 시기에 자녀 교육은 어떠셨나요? 가장 어려웠던 것은 무엇이며,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찾으셨습니까?
4. 중학교(해당한다면 고등학교)는 어떠한 기준으로 선택하셨습니까?
5. 자녀가 어떠한 직업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자녀의 진로 탐색과 관련하여 어떠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6. 학교 외 교육 지원기관(멘토링, 학원, 과외 등등)은 어떠한 동기로 활용하게 되셨으며,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7. 한국 교육은 어떠한 교육이라고 느끼십니까?

초국적 연결망/한국의 지원체제와 교육 지원 행위 관련

8. 본국에 있는 친척 혹은 친구들과는 어떻게 지내십니까?
9. 자녀 교육을 본국에서 시키고자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해당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기에, 어떠한 방식으로 본국에서 자녀를 교육시키고 싶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자녀를 본국에서 교육시키고 싶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10. 자녀가 미래에 자신의 본국에서 진로를 찾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만약 한국에서 본국에서 돌아간다면, 자녀의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이라 보십니까?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신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11. 한국의 자녀 교육 지원 체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멘토링 등)를 이용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용한다면/이용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게임의 규칙’ 관련

12. 본인의 학업 경험은 어떻습니까? 본인의 부모님은 본인을 교육하실 때 무엇을 강조하셨습니까? 돌이켜 볼 때 지금 본인은 그 가치를 어떻게 느끼니까?
13. 한국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복지 기관을 이용하면서 어떤 감정을 겪으셨습니까? 낯선 제도를 이용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지원기관과 ‘잘 지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다고 느끼시나요?
14. 학교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까? 혹은 자녀가 어른들을 대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까? 이러한 교육/양육관은 본국에서부터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한국에 와서 변화한 부분이 있습니까?

질문지(학생용)

학업, 진학, 진로 준비 경험 관련

1. 자신을 어떤 학생이라 생각하십니까? 어렸을 때의 ‘나’ 는 어땠나요? 학생으로서 ‘나’ 는 어떻게 변해왔나요?
2.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의 학교 생활에서 기억에 남는 점을 말씀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3. 공부하는 것은 어떠신가요?
4. 지금의 학교로(고등학생 중심 질문) 진학한 이유는 무엇이고, 진학 과정은 어땠나요?
5. 상위 학교(고등학교, 대학교)는 어디로 가고 싶고, 그 학교를 가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5.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고, 그 진로를 위해 지금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6. 학교 외 다른 교육 기관(멘토링, 학원, 과외)는 어떤 이유로 다니게 되었으며, 그곳에서 기억에 남는 점은 무엇인가요?
7. 한국 교육은 어떠한 교육이라고 느끼시나요?

초국적 연결망과 학업, 진학, 진로 준비 관련

8. 어머니의 모국에 있는 친척들과 평소에 어떻게 지내시나요?
9. 교육을 어머니의 나라에서 받고 싶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계기는 무엇인가요?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10. 미래에 어머니의 나라에서 진로를 찾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만약 한국에서 어머니의 나라로 간다면, 자신에게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이라 보십니까?한국에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하신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게임의 규칙’ 관련

11. 한국 학교에서 잘 지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2. 부모님은 평소 집에서 자신에게 학교에서, 그리고 어른들을 대할 때 어떻게 행동하라고 가르치셨나요?
13. 부모님은 가르침과 다르게 생각한다면 그 이유나, 계기는 무엇인가요?
14. 한국의 사회지원기관을 신청하고 이용하신 분은 누구셨나요? (본인이 신청했다면) 그 과정에서 어떠한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지원기관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느끼시나요?